

육아정책연구소 KICCE 9차 정책토론회

미래환경 대응연구 2차 정책포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영유아교육 : 기후, 그린, 생태



2022. 12. 13.(화) 14:00~16:30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영유아교육 : 기후, 그린, 생태

- ◎ 일정 : 2022. 12. 13.(화) 14:00 ~ 16:30
- ◎ 장소 :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유튜브 '육아정책연구소TV' 생중계)
- ◎ 주최 : 육아정책연구소

시간	세부 일정
13:40~14:00	 등록 및 준비
14:00~14:10	 개회 사회/좌장 박창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개회사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축사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영춘 국립 부경대학교 석좌교수(전 해양수산부 장관)
 발제 및 토론 	
14:10~16:25	발제 1 지옥정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일상의 삶·놀이와 밀착된 유아 기후/환경교육 발제 2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 대표 ▶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어린이 놀이터 운동 발제 3 김은주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생태영유아교육, 한국사회에 던진 화두와 앞으로의 과제 종합토론 토론 1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공존이 생존이다; 아기기후소송과 어린이 정치 참여 토론 2 홍보강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팀장 ▶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과 ESD 인증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례 토론 3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 생태유아교육의 유치원 어린이집에의 적용과 과제 • 질의응답 : 온/오프 청중
16:25~16:30	 폐회

육아정책연구소 KICCE 9차 정책토론회

미래환경 대응연구 2차 정책포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영유아교육 : 기후, 그린, 생태

2022. 12. 13.(화) 14:00~16:30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유튜브 '육아정책연구소TV' 생중계

※ 자료집은 유튜브 채팅창에 당일 공유

주최 | 육아정책연구소

프로그램



시간	세부 일정
13:40~14:00	등록 및 준비
14:00~14:10	<p>[개회] 사회/좌장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축 사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영춘 국립 부경대학교 석좌교수(전 해양수산부 장관)
	발제 및 토론
14:10~16:25	<p>발제 1 지옥정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일상의 삶·놀이와 밀착된 유아 기후/환경교육</p> <p>발제 2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 대표 ▶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어린이 놀이터 운동</p> <p>발제 3 김은주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생태영유아교육, 한국사회에 던진 화두와 앞으로의 과제</p> <p>[종합토론]</p> <p>토론 1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공존이 생존이다; 아기기후소송과 어린이 정치 참여</p> <p>토론 2 홍보강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팀장 ▶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과 ESD 인증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례</p> <p>토론 3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 생태유아교육의 유치원 어린이집에의 적용과 과제</p> <p>※ 질의응답 : 온/오프 청중</p>
16:25~16:30	폐회

CONTENTS

개회사 —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축사

-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 김영춘 국립 부경대학교 석좌교수(전 해양수산부 장관)

발제 및 토론

- 발제 1 | 일상의 삶·놀이와 밀착된 유아 기후/환경교육 3
▶ 지옥정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발제 2 |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어린이 놀이터 운동 15
▶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 대표)
- 발제 3 | 생태영유아교육, 한국사회에 던진 화두와 앞으로의 과제 49
▶ 김은주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종합토론

- 토론 1 | 공존이 생존이다 ; 아기기후소송과 어린이 정치 참여 67
▶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토론 2 |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과 ESD 인증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례 .. 79
▶ 홍보강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팀장)
- 토론 3 | 생태유아교육의 유치원 어린이집에의 적용과 과제 87
▶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입니다.

오늘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영유아교육: 기후, 그린, 생태>라는 뜻깊은 주제로 개최하는 육아정책연구소 제9차 정책토론회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토론회를 위해 축사를 해주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경구 사무총장님,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님, 그리고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시자, 현재 국립 부경대학교 석좌교수님이신 김영춘 교수님 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유아는 기후위기의 문제에서 가장 취약하고, 기후의 문제는 미래세대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뤄질 아기기후소송과 어린이 정치참여, 생태감수성 교육, 일상의 삶과 놀이와 밀착된 유아 기후·환경교육 등의 내용들은 매우 흥미롭고 미래세대 교육을 위한 핵심 이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회의 제목처럼 기후, 그린, 생태교육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영유아교육입니다.

이 의미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오늘 토론회를 위해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와 좌장을 맡아주신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연구위원님,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 지옥정 교수님, 자연의벗연구소 오창길 대표님,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김은주 교수님, 토론을 맡아주신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팀의 홍보강 팀장님, 수도권 생태유아공동체 임미령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2년 12월 13일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상희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경구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제9차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에 일정이 맞지 않아 직접 참여하지 못해 참 아쉽습니다. 영상으로나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9년 아부다비 기후 정상회의에서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기후 위기를 '우리의 생존을 위한 전쟁'이라고 표현하며, 전 세계가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로 막는 파리 선언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를 실행하고자 2020년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을 론칭하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습자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사회 변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변혁적 실행, 즉 'transformative action'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9월 유엔 총회 기간에 열린 교육정상회의는 교육 변혁을 위한 여섯 가지 실행방안을 선정했으며, 그 중 하나가 변혁적 실행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교육파트너십'입니다. 지난 20여년 간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더불어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실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타슈켄트에서 열린 제2회 유아교육세계회의에서도 이와 연계하여 영유아교육의 녹색화 (greening ECCE)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기후위기로 인한 긴급상황에서도 지속해서 영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영유아교육에 있어 환경교육과 기후변화교육, 생태전환교육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버드아동발달센터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만 5세 전 아동발달이 지속가능하고 번영한 사회의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지구와 인류가 연결되어 있음을 배우고, 환경과 사람을 배려하도록 돕는 것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더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혁의 주인공들을 길러내는데 큰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살피고 현재 효과적으로 진행 중인 사례를 공유하며 서로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토론회를 준비하신 육아정책연구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도 이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경구



안녕하십니까.

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제9차 정책토론회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영유아교육: 기후, 그린, 생태〉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의미있는 토론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님,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 김영춘 국립 부경대학교 석좌교수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토론회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데까지 세계적인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었습니다.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중립이 전 세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었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선 올바른 교육으로 전 세계가 받을 맞추어야 합니다. 현재의 위기를 명확히 인식하고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탄소중립과 더불어 미래 세대가 지금의 일상을 자유롭게 누리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선 체계적인 생태 교육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연을 사랑하고 지키는 생태적 삶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통해 내실화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깊게 다뤄져 기후, 그린, 생태의 건강한 교육을 보장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서 나온 고견을 담아 영·유아교육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에 저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병욱

안녕하십니까. 국립 부경대학교 석좌교수 김영춘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 KICCE 9차 정책토론회,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영유아 교육: 기후, 그린, 생태>에 축사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님,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사무총장님,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토론회 발제,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를 피할 수 없고, 기후위기의 증가가 자연재난의 관리를 압도하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2020년 10월 탄소중립을 목표로 선언하면서 탄소중립,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류와 자연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 생태, 환경에 대한 교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은 유아기때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공동체가 함께 환경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푸른 지구를 만드는 환경교육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일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고 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국립 부경대학교 석좌교수(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발제 및 토론

발제 1 일상의 삶·놀이와 밀착된 유아 기후/환경교육

▶ 지옥정 |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발제 2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어린이 놀이터 운동

▶ 오창길 | 자연의벗연구소 대표

발제 3 생태영유아교육, 한국사회에 던진 화두와 앞으로의 과제

▶ 김은주 |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발제 1

일상의 삶·놀이와 밀착된
유아 기후/환경교육

발표자

▶ 지옥정 |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일상의 삶·놀이와 밀착된 유아 기후/환경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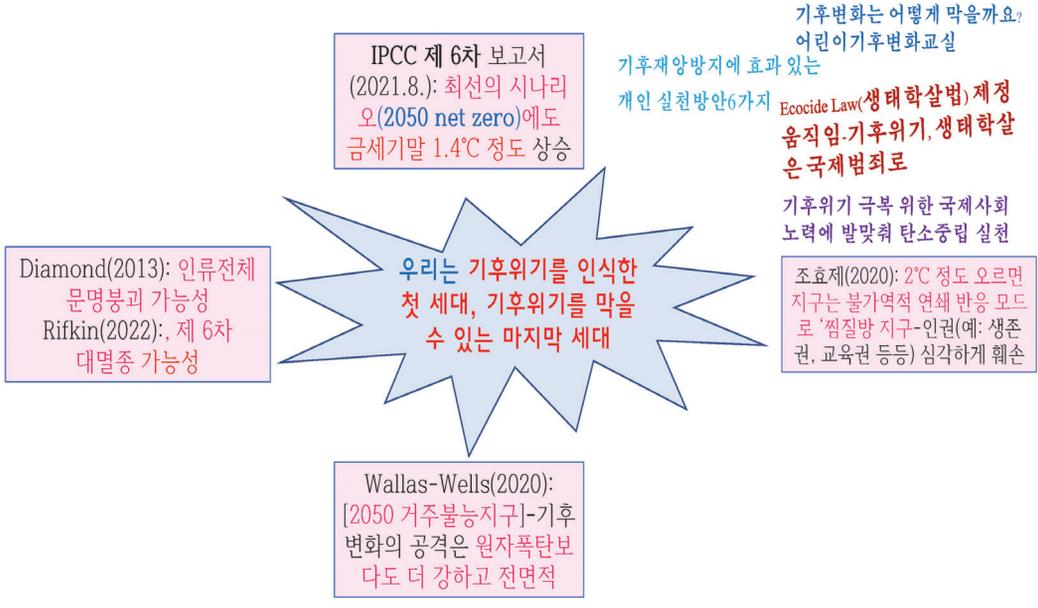
지옥정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EFS 유아와 환경연구소 대표

순서

1. 지속가능발전 지향 유아 기후/환경교육의 필요성
2. 기존 교육과 지속가능발전 지향 유아 기후/환경교육의 차이
3. 일상의 삶·놀이와 밀착된 지속가능발전 지향 유아 기후/환경교육
4. 정리 및 마무리

1. 지속가능발전 지향 유아 기후/환경교육의 필요성

가. 기후위기에 관한 긴급한 경고



1. 지속가능발전 지향 유아 기후/환경교육의 필요성

나. ESD(EfS)의 세계적 강조



유아 기후/환경교육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 중요

2. 기존 교육과 지속가능발전 지향 유아 기후/환경교육의 차이

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보는 관점의 차이

환경교육을 위시하여 향후 모든 교육은 '지속가능성'을 향해 재정향되어야(신은수, 박은혜, 2012; 이재영, 이선경, 2009; 지옥정, 조부경, 서유희, 정애경, 2017; Inoue, 2015; Rifkin, 2022; UNESCO, 2014 등): **인권존중·미래 세대 존중·생태적 다양성 존중·문화적 다양성 존중/공감, 생명애**



2. 기존 교육과 지속가능발전지향 유아 기후/환경교육의 차이

나.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환경교육



추구하는 인간상 중 **더불어 사는 사람**: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는 민주 시민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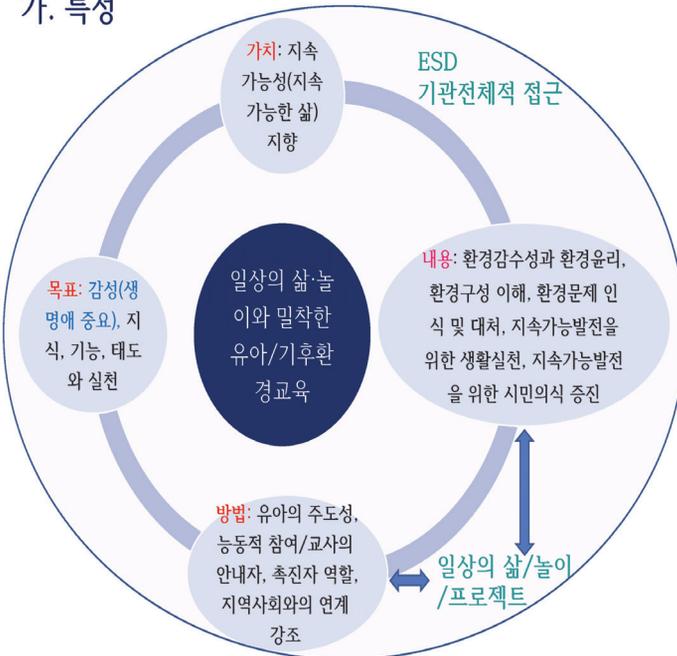
****2020년 이후 기후위기 대처 문제, 연계하여 탄소중립에 관한 교육이 매우 중요 이슈로 대두**

2021년부터 탄소중립 중점학교(2022년에 유치원도 포함), 탄소중립 시범학교(2022년에 유치원도 포함) 시행(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3.10.). 2023년에는 더 확대 예정.



한국환경교육학회: 2022년 하반기 학술대회(2022.12.10.) 주제: 환경교육 의무화 시대의 환경교육 추진 및 체계화 방안

3. 일상의 삶·놀이와 밀착된 지속가능발전 지향 유아 기후/환경교육 가. 특성



어린이지구헌장은 생명공동체를 위한 존중과 돌봄, 정의, 민주주의, 평화를 강조한 지구헌장(2000)에 근거하고 있음. (그림 출처: www.littleearthcharter.org/LEC_home.html)

나. 관련 사례

1) 가경유치원의 '발산공원' 프로젝트



답변및처리[청주시 공원녹지과]

1.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발산공원내 브릭교차공기는 공인무대가 설치되어 관람이 보다 용이하도록 조정수 이식, 표광교체를 하는 사업이며, 최근 일부에 따른 지하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빗물침투가 가능한 투수블록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계획은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주민



시청 관리 부서에 질문(왜 블록을 교체하나요?)-공원의 바닥, 주변 길바닥 블록 조사-블록퍼는 상점 방문: 투수블록과 고휘 압착블록 등 비교 → 물의 중요성, 지하수의 용도, 생물과 물의 관계 이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 증대("공원은 김밥 먹는 곳이에요" → "공원은 우리가 돌보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 곳이에요"(지옥정, 2013)

공원 프로젝트 중 어린이지구헌장을 계기로 우리나라 말, 다른 나라 말(과 사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

어린이지구헌장 관리자에게 메일 보내기-답장 받기-우리나라 말로 의역, 편곡하여 부르기

Our teachers and kids are expecting it after hearing that you agree to translate it in English. It is possible? The person sending the email you got is a kindergarten teacher who is in partnership with us. Our 8 kindergarten schools in partnership are interested in the Earth Charter for kids related with th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e also want to apply it in class. We hope to read and learn the Earth Charter written in English. And these are flyers and video clips about importance of the neighborhood and leaves.

Jc Little
 Hello! Our distributor is looking into the possibility of a Korean version. It may take some time to finance but we hope it will happen.

꼬마 지구헌장(지옥정 의역, 김진희 편곡)

첫째 생명 어디에 나 있지 작은 벌레들과 작은 씨앗
 둘째 연결 모두 두 연결 서로 존중하고 돌봐줘요

작은개 미끈꼬끼리 냇이랑 벗나무 서로 사랑하고 돌봐줘요
 우린모두 다르지 - 사는 곳도 달라 그런데모두는 연결되죠

뽵뽵뽵뽵뽵뽵뽵 꼬마 지구헌장 첫째 생명 어디에 나 있지요
 둘째 연결 서로 서로 연결

지구와 힘찬이랑 어디한 번 볼까 꼬마 지구헌장 첫째는 생명
 둘째는 연결

* 이후 어린이지구헌장 노래를 우리 전통 가락으로 재편곡, 이후 다시 유아들의 의견을 반영한 랩 버전으로 변형

지옥정 의역, 김진희 편곡

○		○		○	○	×	
첫	째!	생	명!	생	명!	생	명!
들	째!	연	결!	연	결!	연	결!
○		○		○		×	
여	러	분	지	구	인	오~	예~
여	러	분	지	구	인	오~	예~
○		○		○		○	
살	금	살	금	개	미	오-	예-
살	금	개	미	코	끼	리	오-
○		○		○		○	
중	광	중	광	코	끼	리	오~
고	래-	트	끼	플	소	나	무
○		○		○	○	×	
우	리	모	두	생	명	사	랑
우	린	모	두	연	결	연	결
○			○	○			○
아	리	아	리	아	리	랑	프
○		○		○		○	
생	명	은	소	중			
○		○		○		○	
해	---						

(아리아리아리랑~ 2번 반복)

나. 관련 사례:

2) 아이림유치원의 '빗물저금통' '퇴비 만들기통' 활용-텃밭 가꾸기



보급 및 활용만큼이나 중요한 사후 관리 문제:

- 빗물저금통: 청소 및 위생 문제
- 음식물 퇴비통: 모기, 쥐 문제

나. 관련 사례:

3) 호주 방크시아 어린이집의 '일벌(working Bee)' 프로젝트

비슷한 바깥놀이 환경을 갖춘 두 원 비교: 1년간의 바깥놀이 중 '일벌 프로젝트'를 진행한 방크시아 어린이집과 '바깥놀이 시 교사가 정해진 규칙을 따르도록 지도한 A원과의 1년 후 환경교육 관련 결과 비교(Elliott, 2015).

방크시아 어린이집



'일벌' 프로젝트를 통해 바깥놀이 환경 개선,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

유아, 교사, 부모 상호 협력적 관계 형성

프로젝트 전 과정에 유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창의성, 문제해결력 향상

비교 기관으로서의 A원



'모래놀이 할 때 하루 물 사용량은 양동이 하나만 사용한다'는 규칙을 교사가 정해주고 따르도록 함.

유아들에게서 '물 절약 관련하여 약간의 사고 및 행동 변화'가 나타났음.

참고: 최근 호주의 유아교육기관 solar panel 설치 노력 사례와 활용유치원



AUSTRALIAN PARENTS FOR CLIMATE ACTION

GET INVOLVED ▾ RESOURCES ▾ BECOME A SUSTAINER ▾ DONATE

JOIN US

WEAR A T-SHIRT

MEET YOUR LOCAL ACTION GROUP

SIGN OUR LETTER TO THE ENVIRONMENT MINISTER

LET'S GET SOLAR ON EVERY SCHOOL IN AUSTRALIA

FIND AN EVENT

Solar Our Schools: State of Play - Qld

Write to the Queensland Minister for Education asking her to work in partnership with the federal government to support funding and remove barriers to Solar Our Schools.



You can cut and paste the template below and customise it where indicated. Or write your own letter.

I am one of more than 11,000 parents nationwide who have signed Australian Parents for Climate Action's open letter to the Prime Minister calling for Federal support for Solar Our Schools.

We are aware that the Queensland government has made a strong investment into solar panels for all state schools and we ask that you extend this investment into renewables for independent schools and early childhood centres. Installing solar panels across the rooftops of early childhood centres and independent schools would allow them to also generate solar for their operations.

출처: [https://www.ap4ca.org/dutyofcare\(2022.12.4.인출\)](https://www.ap4ca.org/dutyofcare(2022.12.4.인출))



나. 관련 사례:

4) 일본 토마오카나시 어린이집: 태양광 패널 설치-일상에서 활용



そらべあ発電所によるCO₂削減量
 솔라베아 발전소에 의한 CO₂ 삭감량

솔라베아 기금(신재생에너지의 보급개발과 환경교육을 하는 NPO법인)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소니가 대표적)으로부터 지원받아 전국 유치원·보육원·어린이집에 태양광 발전 설비인 “솔라베아 발전소” 기증(솔라베아 스마일 프로젝트). 프로젝트 목표: 환경교육 관점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도입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아 미래를 바꾸어 나가는 것. 2008년부터 지금까지, 홋카이도에서 규슈까지 전국의 유치원·보육원·어린이집에 솔라베아 발전소 퍼짐.

출처: 스마일프로젝트 | そらべあ基金 (solarbear.jp) 2022.12.4. 인출



솔라 LED 랜턴 공작 세트·
 원내 활동용 자재·활동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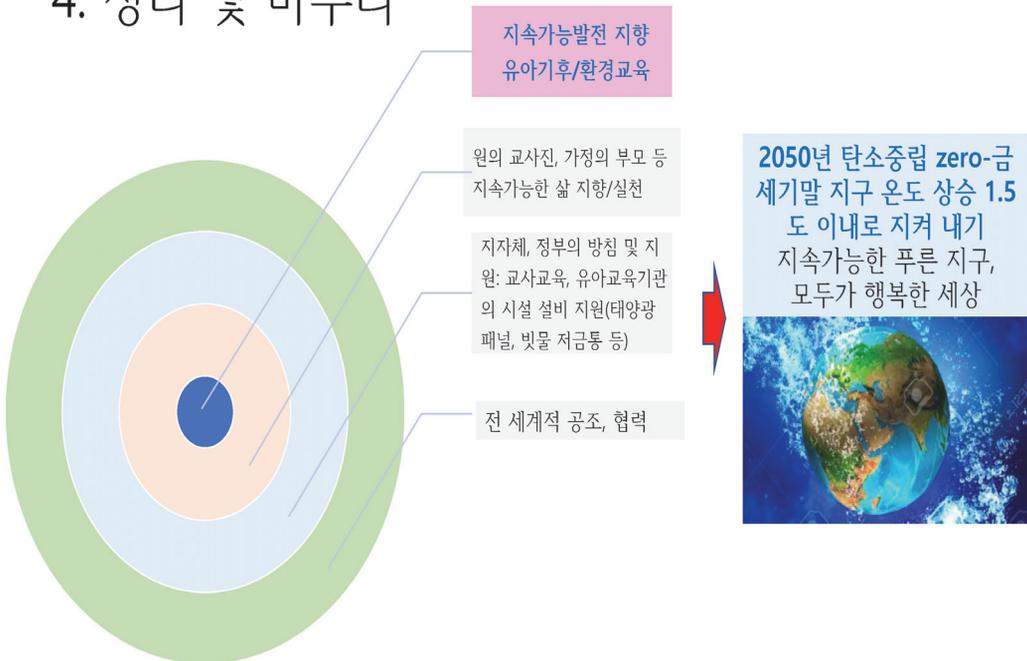


기증판과 계측 모니터 정전시의
자립 발전 콘센트

▶ 토미오카니시 어린이집: 오사카 오타니대학 유아교육실천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10년간 지속가능성 지향 유아 환경교육 실천연구 실시. 유아들이 매일 생태계 상호연관성(물, 나무, 곤충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외놀이터를 완전히 바꿈. 텃밭은 원 옆에 따로 있음(겨울 실외놀이터 사진은 직접 촬영).

▶ 2020년 1월 21일, 69기째 「솔라베아 태양광 발전소」 설치. 일상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
(출처: <https://www.solarbear.jp/news/smileproject/1822/> 2022.12.4. 인출)

4. 정리 및 마무리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2). 유아녹색성장교육 프로그램.
- 교육부(2021). 유아기후변화교육.
- 교육부(2022.11.9.). 행정예고본 교육부 고시 제2022-00호 별책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교육부, 보건복지부(2019).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 신은수, 박은혜(2013).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한 유아교육과정의 재방향 설정. **육아지원연구**. 7(1). 27-50.
- 이재영, 이선경 편저(2006).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뭐예요?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 임현묵, 박환보(2018).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는 교육.**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조효제(2020). **탄소사회의 종말.** 서울: 21세기북스,
- 지옥정(2013).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공원’ 프로젝트 중 유아들의 공원에 대한 인식 변화 분석. **어린이미디어연구**. 12(3), 373-396.
- 지옥정(2015). 누리과정에서 범교육과정의 통합적 운영: 녹색성장교육을 중심으로. 2015년 유치원 컨설팅장학요원 직무연수(기초①) 교재. 청주: 한국교원대 학교 유아교육원. 135-148.
- 지옥정(2022). **유아교육현장에서의 프로젝트 접근법**(5판). 서울: 창지사.
- 지옥정, 조부경, 서유희, 정애경(2017). **지속가능발전지향 유아환경서울.** 서울: 창지사.
- 환경부(2021). **유아환경교육 프로그램**(5판).

- Diamond, J. (2013). **문명의 붕괴[Collapse]**. (강주현 역). 서울: 김영사(원저: 2005년 출판).
- Inoue, M.(2015). 일본의 유아기 환경교육에 대한 관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제고, in Davis, J. & Elliott, S. (eds.), **지속가능성을 위한 유아교육연구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for Sustainability]**(pp. 118-137), (지옥정, 허미화, 정미라, 백은주 역), 서울: 창지사. (원저 2014년 출판).
- IPCC(2021.8.). **Climate Change 2021.**
https://www.ipcc.ch/report/ar6/wg1/downloads/report/IPCC_AR6_WGI_SPM_final.pdf에서 2022년 7월 5일 인출.
- Rifkin, J. (2022). **회복력 시대[The Age of Resilience]**. (안진환 역). 서울: 민음사. (원저 2022년 출판)
- UNESCO(2014). **Shaping the future we want: 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2005-2014) Final Report.** Retrieved from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3/002303/pdf>에서 2016년 7월 9일 인출.
- Wallas-Wells(2020). 2050 거주 불능지구: 한계치를 넘어 종말로 치닫는 21세기 기 후 재난 시나리오 [**The Uninhabitable Earth**]. (김재경 역). 서울: 추수밭. (원저 2019년 출판)

발제 2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어린이 놀이터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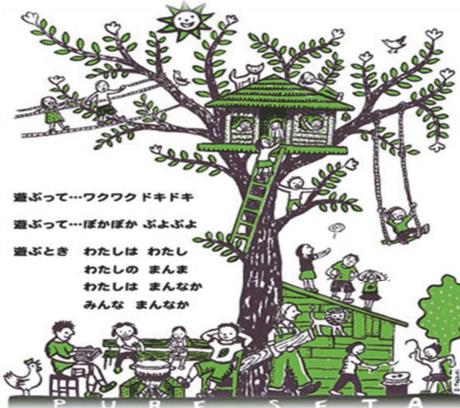
발표자

▶ 오창길 | 자연의벗연구소 대표



생태적감수성을 키우는 어린이놀이터운동

오창길((사)자연의벗연구소 이사장)



생태적감수성을 키우는 어린이놀이터운동

- 어린이와 놀이
- 한국의 어린이, 놀 권리
- 도시화와 놀이터
- 모험과 도전의 플레이파크운동
- 양천구하늘마루 프로젝트
- 시민이 만들고 운영하는 꿈의 놀이터

어린이와 놀이

피테르 브뢰겔 '어린이들의 놀이'(91가지의 놀이)



National Trust 선정한 12살 이전에 해야 할 50가지

- 2012년 영국 내셔널트러스트는 실내에서만 활동하는 아이들을 집 밖의 자연으로 끌어내 자연 속에서 함께 활동하며 놀도록 권장하는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
- '12세가 되기 전에 해야 하는 50가지(50 things to do before you're 11 3/4)' 캠페인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해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모험가(Adventurer), 발견가(Discoverer), 관리자(Ranger), 추적자(Tracker), 탐험가(Explorer)으로 나누어 소개
- 아이들은 거대한 놀이터인 자연에서 생각하고 뛰어다니며 놀면서 놀이에 참여하고 또 다른 놀이를 만들어 낸다.



National Trust 12살 이전에 해야 할 50가지

1. 나무에 오르기
2. 아주 큰 언덕에서 굴러 내리기
3. 야생 자연에서 야영하기
4. 나무 은신처나 동굴 같은 아지트 만들기
5. 물수제비뜨기
6. 빗속에서 뛰어다니기
7. 연날리기
8. 그물로 고기 잡기
9. 나무에 달린 사과 직접 따 먹기
10. 마로니에 열매 깨기 놀이
11. 눈 뭉쳐 던지기
12. 해변에서 보물찾기 놀이
13. 진흙으로 파이 만들기
14. 개울에 독 쌓기
15. 썰매 타기
16. 모래사장에 사람 묻기
17. 달팽이 경주시키기
18. 쓰러진 나무 위에서 균형 잡기
19. 밧줄 그네 타기
20. 진흙 미끄럼 타기
21. 야생 블랙베리 따먹기
22. 나무속 들여다보기
23. 섬에 가기
24. 바람 속에서 나는 느낌 가져보기
25. 풀잎피리 만들기

National Trust 12살 이전에 해야 할 50가지

26. 화석과 동물 뼈 찾기
27. 해 뜨는 모습 보기
28. 큰 언덕 오르기
29. 폭포 뒤에 있기
30. 손바닥에서 새에 먹이 주기
31. 벌레 잡기
32. 개구리 알 찾기
33. 잠자리채로 나비 잡기
34. 야생동물 추적하기
35. 연못 속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기
36. 부엉이 부르기
37. 바위 사이 웅덩이에 사는 괴상한 생물 조사하기
38. 나비 키우기
39. 게 잡기
40. 밤에 자연관찰 나가기
41. 식물을 직접 키워 먹어보기
42. 야생에서 수영하기
43. 래프팅 하기
44. 성냥 없이 불 피우기
45. 지도와 나침반으로 길 찾기
46. 쉬운 암벽 등반 시도하기
47. 모닥불 피워 음식 만들기
48. 밧줄을 이용해 비탈길 내려가기
49. 숨겨둔 상자 찾아내기
50. 강 따라 배 따라 내려오기

한국의 어린이, 놀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이 채택한 어린이 권리조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192개국이 이 협약을 지킬 것을 약속
- 건강하게 자랄 권리, 교육받을 권리, 놀 권리 등 어린이가 누려야 할 권리들을 모두 담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각 나라에서 어린이 상황을 개선하는 기반
-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부터 40조까지가 실제적인 아동권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 중 31조 “놀이와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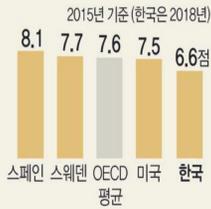
<아동의 4가지 권리>



-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중 31조 “놀이와 권리”에 관한 부분이다. 협약 당사국인 우리나라도 마땅히 지켜야 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 실제로 어린이들의 놀이 시간은 거의 없다. 보건복지부의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 절반 (52.8%) 이 음악 운동 취미생활 등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60.2점(2013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지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아동실태조사 주요 결과 *201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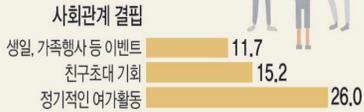
주요국 아동의 삶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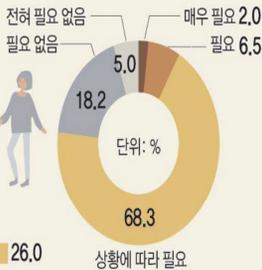
방과후 희망활동과 실제활동



영역별 결핍



아동 체벌에 대한 국민인식



자료/ 관계 부처 합동

연합뉴스

장애진 기자 / 20190523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ey.kr/LeYN1

- 보건복지부의 '2018년 아동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국아동의 물질적 결핍(가정 내 인터넷 활용, 식사·의류, 독서공간 등)은 낮은 수준이지만, 사회 관계적 결핍(여가, 친구·가족과의 활동 등)은 높은 수준이었다.

연합뉴스 2019/05/23

모험과 도전의 플레이파크운동

외국의 놀이정책_아일랜드

-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아일랜드 정책은 놀이를 통한 아동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놀이와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인식을 키우고, 놀이를 지원하며, 비만을 해결하는 것이다.
- 2011년 아일랜드 정부는 '레크리에이션은 아동과 청소년의 삶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아동·청소년 카페 및 프로젝트와 놀이 시설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다. 또한 놀이 및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지원으로 전국적 네트워크(National Play and Recreation Network)를 구축하고 레크리에이션 주간(National Recreation Week)을 매년 진행하여 모든 지역이 참여토록 하였다.
- 놀이의 날(National Play Day)
놀이의 날은 아이들과 가족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놀이를 경험하도록 지방자치 단체가 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아이들의 신체와 사회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 행사로 진행한다. 이날 진행되는 놀이는 전통적인 바깥놀이부터 축구, 미니올림픽, 장애물 코스, 보물찾기 등을 한다.

외국의 놀이정책_독일

1) 여가를 활용한 배움

베를린에서는 가족 우호적 도시 콘셉트로 자연에서의 놀이 및 문화공간과 여가 속에서 교육기회를 장려한다. 학교 교육만으로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아이들에게 여가와 놀이를 위한 학교밖 교육기회를 제공하였다. 여가 시간 동안 배움의 기회를 갖게 하고 자연스러운 교육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도록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2) 학교 밖 교육은 놀이터에서

베를린 시에서는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놀이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각각의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놀이터 정보 제공홈페이지에 의하면 아이들을 위한 공공 놀이터는 총 1,850개로 개방된 녹지 및 학교 부지와 숲에 조성되어 있다. 독일이 생각하는 놀이는 삶을 배우는 방법이며, 놀이터는 삶을 배우는 실험실이고, 물리적인 움직임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외국의 놀이정책_미국, 핀란드

미국
 아동의 발달에 놀이가 중요하다고 믿는 미국의 놀이 공간 프로그램(Playspace Program)은 홈리스 쉼터에서 지내는 소외된 아이들의 발달에 필요한 놀이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놀이 공간 프로그램은 놀이 공간 리더(Playspace Activity Leaders)라고 불리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된다. 그들은 쉼터에서 아이들에게 적합한 놀이와 게임을 함께 하며 건강한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활동을 한다.

핀란드
 아이들의 놀이 시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는 핀란드 학교에서는 바깥 놀이와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내와 실외활동이 대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절과 상관없이 실외온도가 영하 15도 이하가 되기 전까지는 총 3~4시간의 놀이를 한다. 바깥놀이를 자신 주변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을 증진한다

새로운 놀이터의 탄생_플레이파크운동



- 1943년, 덴마크에서 탄생 (현재, 유럽은 1000여개 활동)
- 1979년, 일본 세타가야플레이파크 탄생
- (현재 240여개 단체활동)



모험놀이터의 탄생

- 1865년 유럽에서 공립 놀이터가 생긴 후, 1943년 덴마크의 공원설계가인 소렌센(C.Th.Sørensen)이 코펜하겐에서 「잡동사니 놀이터」(Geruempelspielplatz)라는 아이디어로 플레이파크가 시작되었다.
- 1950년대에는 스위스나 영국에서 같은 형식의 놀이터가 만들어져 로빈슨 놀이터 또는 모험놀이터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
- 1960년대 서독의 서베를린에서 모험놀이터가 일반적으로 많이 생겼고, 그 이후에는 모험놀이터 또는 플레이파크라고 불려졌다.
- 유럽은 현재 1000개 정도의 플레이파크가 있고, 일본의 플레이파크의 중심 단체인 일본모험놀이터만들기협회 안에는 237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모험놀이터의 철학

- 안전하지만 미리 **정해져있**는 시설이나 놀이 계획에서 벗어나서 아이들 스스로가 자유롭게 변화시키고 고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고, 또 아이들이 놀이 공간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고 놀이를 창조하고 발견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 아이들은 모험적이면서 자칫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 다양한 놀이들을 마음대로 하며 놀 수 있다. 그네, 시소, 철봉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기존의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과는 달리 노는 방법이나 놀이기구나 시설의 형태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어찌 보면 굉장히 무질서 하지만 그 속에서 **아이들의 상상, 창조성, 신체의 운동성을 자극하면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곳, 또래 집단과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놀이를 할 수 있는 곳, 자연과 동물과의 만남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곳, 여러 가지 모험과 도전의 기회가 가득한 곳**이 바로 플레이파크이다.

새로운 놀이터의 탄생_ 플레이파크운동

- 세타가야 플레이 파크는 역사는 1975년 7월 시작되었다.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보고 그 놀이 환경에 의문을 품은 한 부부가 중심이 되어 세타가야 구 카라스야마강 도시공원 내에 여름방학만의 특별 기획으로 모험 놀이터 '어린이 천국'을 개설한 것이 처음 바로 그 시작이었다.
- 영국의 플레이파크에서 힌트를 얻은 이 놀이터는 1977년,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15개월에 걸쳐 모험놀이터 기획을 확대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 이 모험 놀이터가 동네 아이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고, 직접 손으로 만든 놀이터는 1979년 세타가야구가 '국제 아동의 해' 기념 사업 중의 하나로 플레이파크를 채택하면서 주민과 구청과의 협동 사업으로 일본에서 첫 상설 플레이파크 「하네기(羽根木) 모험의 놀이동산」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 현재 세타가야 구에는 세타가야구내의 공원에 4개의 플레이파크가 주민들의 자원 봉사에 의해 주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이를 돌보는 모험놀이터

- 도쿄도의 히카리가오카공원에는 특히 유아들이 참여하는 플레이파크운동이 활발하다. 히카리가오카공원을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는 「모두 함께 반짝반짝 육아네트」는 히카리가오카 공원에서 2003년부터 플레이파크를 열었다.
- 약 8500명의 이용자의 과반수 이상이 유아를 데리고 온다. 처음 주 2회 개최하던 것을 2009년 봄부터 4회로 늘렸다. 아이들을 데리고 플레이파크에 다니기 좋고 살기 편한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한 가정이 적어도 6가구 이상이 넘는다고 한다.
- 이곳에 이사를 온 3살짜리 아이의 엄마는 말한다.
-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게 됐어요. 생활도 즐거워졌고 짜증내는 일도 적어졌어요.”**

어린이 권리로서의 좋은 환경(놀이터)_가와사키시

- 제31조 시는 아이들의 자주적 또는 자발적인 참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들이 아이들만으로 자유롭게 안심하고 모일 수 있도록 거점만들기에 노력하도록 한다.(<가와사키시 어린이인권조례_ 2001년>



가와사키 꿈의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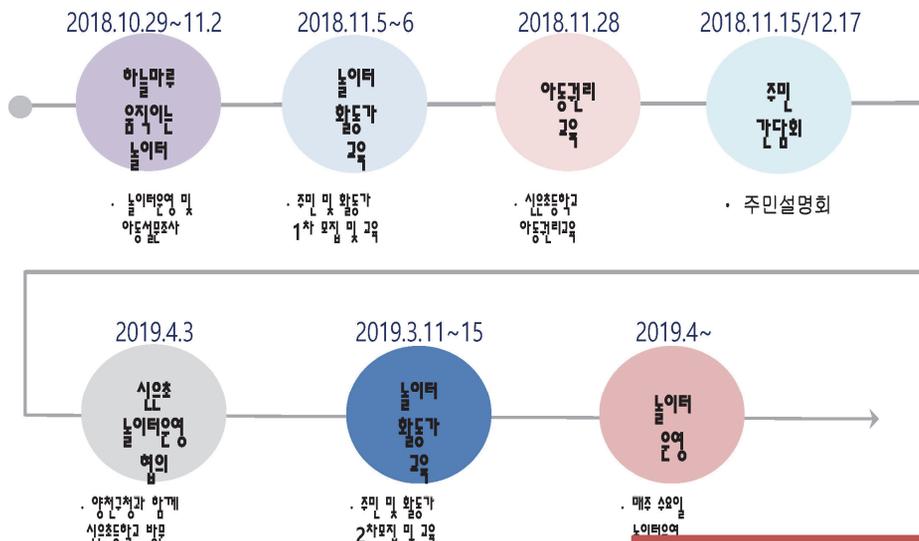


양천구 하늘마루 프로젝트

(사)자연의벗연구소



'놀이문화공간 마련 + 아동참여활동 + 놀 권리 보장 프로그램' 진행과정



사전모습



공원 전경



조합놀이대



고무칩포장



시소

25

사전모습



흔들놀이



퍼걸러



바닥분수



음수대

26

2018년 사업 활동모습 - 놀이터간담회



사진1) 놀이터간담회 9월



사진2) 놀이터간담회 10월



사진3) 놀이터간담회 12월

2018년 사업 활동모습 - 놀이터 자문회의



사진1) 놀이터자문회의/9월- 하늘마루어린이공원 답사



사진2) 놀이터자문회의/10월 - 놀이터자문회의



사진3) 놀이터자문회의/11월 - 예견 디자인연구소와 컨설레이터 회의



2018년 사업 활동모습 - 신은초 아동권리교육



사진1) 아동 권리 교육1 - 신은초 4하늘반 학생들



사진2) 아동 권리 교육2 - 신은초 4해오름반 학생들

2018년 사업 활동모습 - 놀이터활동가 모집 및 교육



사진1) 놀이터활동가 심화교육 1차- 자연사박물관놀이 (황경택 강사/손바닥숲놀이 저자)



사진2) 놀이터활동가 심화교육 1차 - 나뭇가지끼워 넣기놀이(황경택 강사/손바닥숲놀이 저자)



사진3) 놀이터활동가 심화교육 1차 - 애벌레망원경놀이 (황경택강사/손바닥숲놀이 저자)



사진4) 놀이터활동가 심화교육 1차 - 자연물로 그림그리기(황경택 강사/손바닥숲놀이 저자)

2018년 사업 활동모습 - 놀이터활동가 모집 및 교육



사진5) 놀이터활동가 심화교육 1차 - 자연을 웃입히기 (황경덕 강사/손바닥숲놀이 저자)



사진6) 놀이터활동가 심화교육 단체사진



사진7) 놀이터활동가 심화교육 2차 - 놀이설명(이수정강사/놀이하는사람들 상임이사)



사진8) 놀이터활동가 심화교육 2차 - 딱지놀이3종(이수정강사/놀이하는사람들 상임이사)

31

2018년 사업 활동모습 - 놀이터활동가 모집 및 교육



사진11) 놀이터활동가 심화교육 3차 - 손가락 휴그림 그리기 (양은희강사/생태미술놀이 미살림대표)



사진12) 놀이터활동가 심화교육 3차 - 휴그림 그리기(양은희강사/생태미술놀이 미살림대표)



사진13) 놀이터활동가 심화교육 4차 - 나뭇가지 배기놀이(양은희강사/생태미술놀이 미살림대표)



사진14) 놀이터활동가 심화교육 4차 - 휴그림 공동벽화(양은희강사/생태미술놀이 미살림대표)

32

2018년 사업 활동모습 - 놀이터운영 및 어린이워크숍



사진1) 어린이워크숍(어린이들의 생각 들어보기) - 하늘마루 사령시 짓기를 통해 놀이터에 대한 생각 언어표상활동 전시사진



사진2) 어린이워크숍(어린이들의 생각 들어보기)- 하늘마루 사령시 짓기를 통해 놀이터에 대한 생각 언어표상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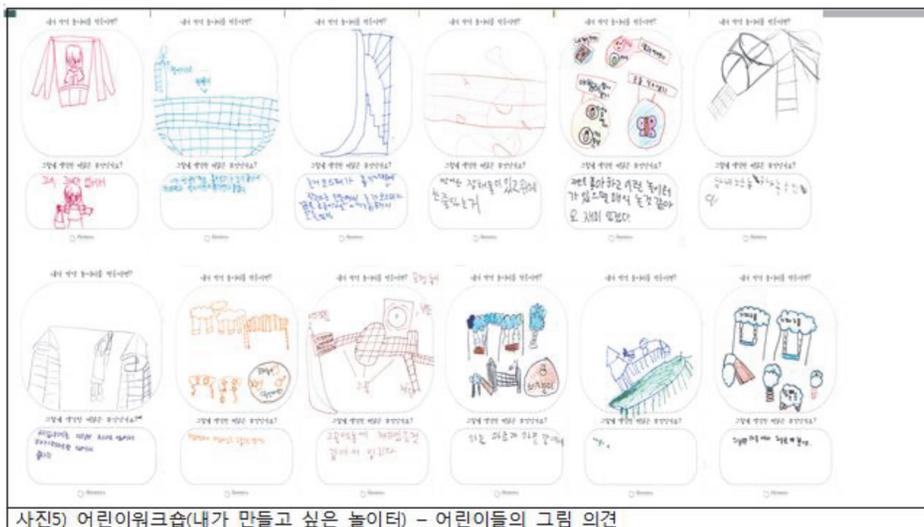


사진3) 어린이워크숍(내가 만들고 싶은 놀이터) - 상상표상활동



사진4) 어린이워크숍(어린이들의 놀이터 선호도 조사)- 원하는 놀이터 사진에 스티커 붙이기 및 세계의 놀이터 사진전시

2018년 사업 활동모습 - 놀이터운영 및 어린이워크숍



2018년 사업 활동모습 - 놀이터운영 및 어린이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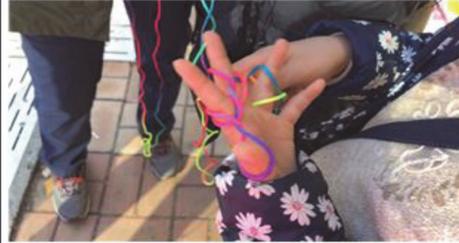


사진6) 놀이터운영 - 싹뜨게 놀이



사진7) 놀이터운영 - 그물 그네 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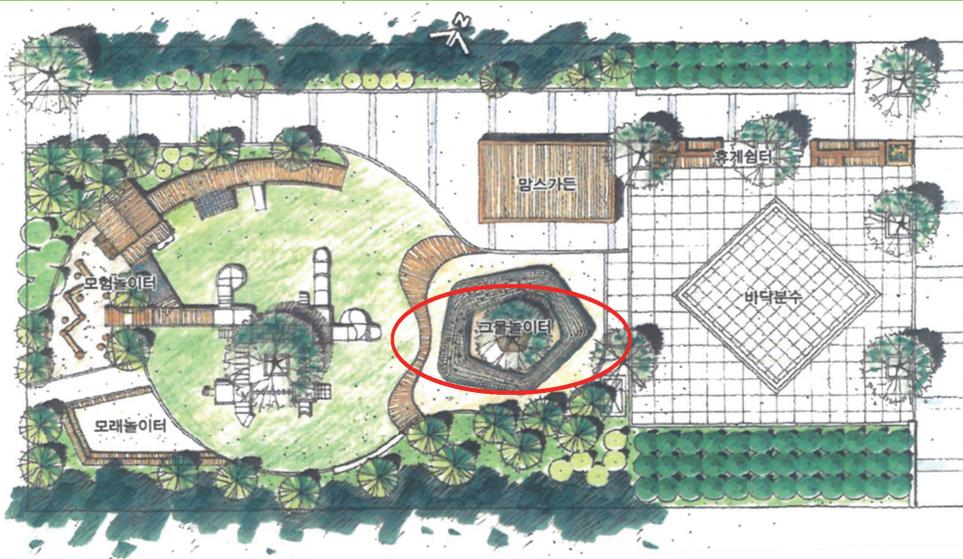


사진8) 놀이터운영 - 줄그네 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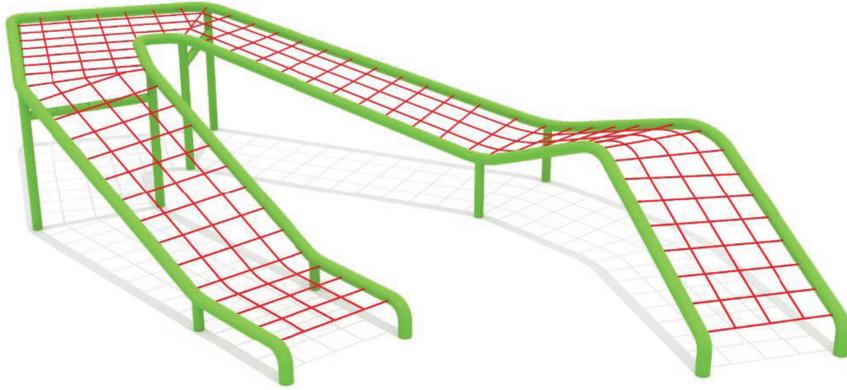


사진9) 놀이터운영- 반전림보

완공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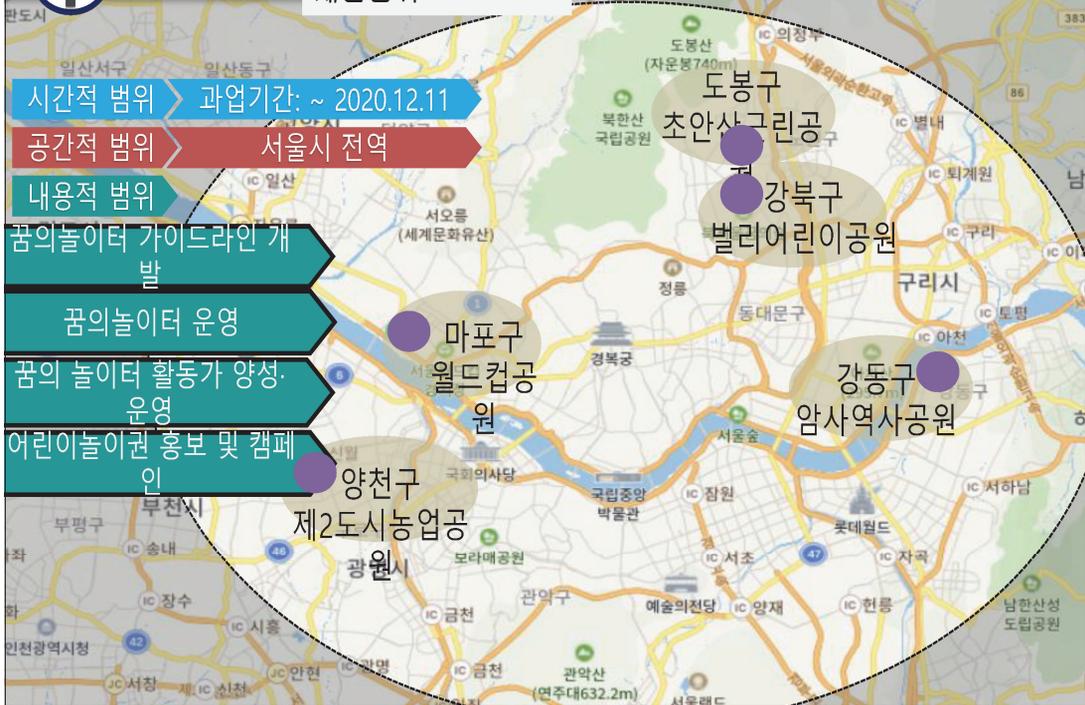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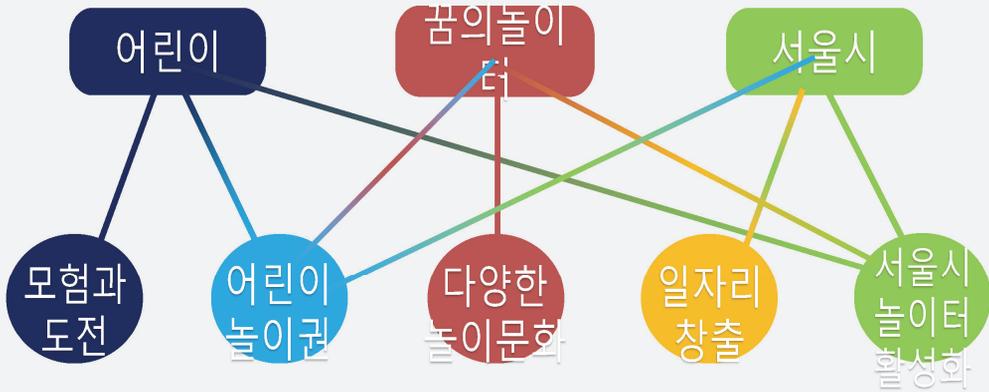
완공모습 - 놀이시설물



37

시민이 만들고 운영하는
꿈의 놀이터

시민이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꿈의 놀이터 추진을 통해
 기존의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벗어나 지역과 함께
 공간을 꾸미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자연친화적 놀이공간 설치와 운영을
 통한 모범사례 창출



- 시간적 범위 > 과업기간: ~ 2020.12.11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 내용적 범위 > 꿈의놀이터 가이드라인 개발
- 꿈의놀이터 운영
- 꿈의 놀이터 활동가 양성·운영
- 어린이놀이권 홍보 및 캠페인



모험놀이터

정해진 공간 내에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

- 7. 어린이가 참여하는 공간
- 8.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에 위치
- 9. 스태프
- 10. 폭넓은 접근성
- 11. 무료개방과 출입, 자유로운 놀이

선택

- 종류
1. 어린이의 자발적인 표현
 2. 어린이의 선택에 의한 폭넓은 놀이의
 3. 신체 사회 감성 상상의 공간
 4. 놀이신호의 자유로운 흐름
 5. 놀이의 과정을 보호하는 공간
 6. 풍부한 놀이환경

· 서울놀이터네트워크 구성
 운영 전략수립
 · 놀이터관련 정책·제도 조사
 를 통한 정책제안
 어린이가 직접 만들고 즐기는 상상과 실험의 '꿈의 놀이터'



놀이에 몰입하여 스스로 놀이를 즐기고 놀이를 만들어가는 어린이 놀이문화 확산

- 어린이가 주도성을 갖고 창의적으로 놀이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 필요
-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아우르는 지역 자원으로 놀이의 역할과 가치 재조명
- 아동 놀 권리 및 놀이터 활성화를 위한 시민 홍보



시민이 만들고 운영하는 꿈의 놀이터

- 꿈의놀이터 가이드라인 개발과 운영을 통한 시민참여 모델 개발
- 놀이터 활동가와 함께하는 놀이터 활성화 추진
- 어린이놀이권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시민행사 추진
 - 어린이가 주인 되는 꿈의 놀이터
 - 민관이 함께하는 꿈의 놀이터
 - 지역-마을과 연계하는 꿈의 놀이터
 - 도전과 모험이 있는 꿈의 놀이터
 -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꿈의 놀이터
- 꿈의놀이터 가이드라인 개발
- 꿈의놀이터 운영
- 꿈의놀이터 활동가 양성과 운영
- 어린이놀이권 홍보 및 캠페인



추진
목적

- 꿈의놀이터 개념정립 및 방향성 제시
- 어린이가 주도하는 놀이환경의 이해 및 가치 제고
- 놀이터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 강화
- 참여형 놀이터문화 확산

실제적인 운영에 필요
한 역량과 지침 제시

주민, 어린이 참여형
컨텐츠 및 프로세스 마

추진
방향

지역놀이터의 매개자,
촉진자를 위한 지침서

운영 전반 프로세스
설계로 운영 체계성
확보



주요내용

공간구성과
프로그램

- 대상지 선정 방법
- 대상지 별 적합한 활동과 구조물 계획하기
- 놀이공간 만들기
- 자연물 활용 놀이프로그램 운영 방법
- 노작, 공방, 건축 등 유형별 운영 방법
- 인식변화와 문화 개선을 위한 컨텐츠 가이드
- 꿈의놀이터 안전 가이드

마을조직과
홍보

- 지역자원 발굴,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 방법
- 놀이터 운영을 위한 홍보 가이드
- 재정마련을 위한 가이드
- 행정과의 연계 및 협력 가이드



추진 목적

- 놀이 실험과 모험의 자유로운 장 제공
- 놀이터의 주인이 되는 아동과 주민
- 지역의 다양한 놀이터 운영 모델 발굴
- 놀이터의 지속적인 관리 운영

어린이가 만들어가는 꿈의놀이터 운영

어린이와 주민 참여과정

추진 방향

협치 및 운영

지역특성과 마을조직 결합된 놀이터선정

민관협력 꿈의놀이터 협의체 운영



흙 산 만들기 워크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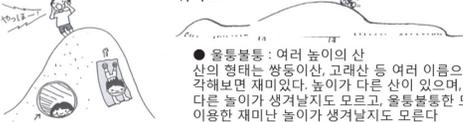
흙산의 의미

1. 평지에 언덕을 만든다.
2. 흙을 파고 노는 것이 가능하다



디자인 이모저모 · 산의 모양과 높이에 의해 놀이가 달라져요

- 높은 산 : 산이 높아지면, 오르고 미끄러지는 놀이로 흥겨워져요



- 윙통볼통 : 여러 높이의 산의 형태는 쌍둥이산, 고래산 등 여러 이름으로 생각해보면 재미있다. 놀이가 다른 산이 있으며, 각기 다른 놀이가 생겨날지도 모르고, 윙통볼통한 모양을 이용한 재미난 놀이가 생겨날지도 모른다



- 이러한 사용법도 가능 : 경사면을 이용해서 스터디지와 관촬석, 미팅스페이스를 만드는 것도 좋다

배치하는 것에 대해

- 집에서 떨어진 곳에 배치 (주민지에 주의) 흙 산은, 놀이 중에 흙먼지가 일어나기 쉽다. 가까이에 집이 있을 경우, 세척물이 흙투성이가 될 수 있다. 되도록 집에서 떨어진 곳에 만들자

- 넓은 장소를 고른다

- 높고있는 도중에, 흙산이 조망범위 너머된다. 산을 만드는 것이 넘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배치하자



[관리의 포인트]

- 흙먼지의 해결방법
 - 흙이 잘라붙었을 때는 물을 사용하자
 - 물을 뿌려 얇고 자라게 놓아두자 (여름에 풀이 자라는 기간을 방해해두면 좋다)
- 흙이 없어지면, 흙을 보충한다 (정기적으로 흙을 채우는 곳도 있다)

만드는 법

- 흙을 트럭으로 운반한다 & 포크레인으로 썬는다



- 건설회사와 상담해서, 흙을 버리지 말고 달라고 이야기 한다(흙이 줄이나 상태를 잘 체크할 것)
- 흙을 파거나 미끄럼틀을 타거나 만발로 놀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것들이 쉬는 것 꼭 확인!
- 흙에 앉은 것에 사용하는 상복을 약해서 구입하는 것도 가능
- 팔아줄 때, 땅속이나 수레를 이용해서 소스로 하는 것도 가능

- 평지를 파서, 연못을 만들면서 언덕을 만든다
- 포크레인으로 파거나, 모투 아삼이나 수레를 사용해서 만든다
- 연못은 진흙양이어도 좋고, 생물이 있는 연못이어도 좋다

- 흙 산을 단단하게 만드는 법
 - 흙을 잘아붙은 상태로 두면 자연스런게 굳는다
 - 아삼이나 모투를 사용하면 단단하게 해도 좋다

[흙주머니를 쌓아 지형을 만들자]

주머니 안에 씨앗을 섞어두면 백이 자라요

흙주머니를 많이 쌓아서, 산을 만들거나 산악지형 거 정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쌓아놓는 방법에 의해 높아지는 형태도 간단히 만들 수 있다. 물을 사용하기 위해 고무시트 주변에 방는 방법에도 제일 좋다.

흙주머니는 가능하면, 상베로 만든 것이 좋다. 상베봉투는 대개 3년 정도 지나면 분해되어, 땅으로 돌아가 환경에 좋다. 커피콩을 볶는 기계가 1년 내분봉 공짜로 얻을 수 있다. 주머니 크기는 대개 60cm X 90cm 정도. 봉투에 들어가는 흙의 양은, 산으로 2-3번 정도면 조동하고 저학년 학생도 옮길 수 있다. 주머니 가득 흙을 담은 뒤, 뒤엎을 수 있다. 주머니 가득 흙을 담은 뒤, 뒤엎을 수 있다. 주머니 안에 풀씨를 넣어두면, 봉투에서 씨가 자란다. 옥초 씨앗(우보리), 우산잔디를 시험해보자





과업수행부문 꿈의놀이터 대상지



1. 마포구
 월드컵공원
 1000개의 숲가꾸기 시민활동을
 놀이터활동으로 연계
 목공작업 특화



• 도봉구
 • 초안산근린공원
 • 숲 모험놀이터 운영예정



• 양천구
 • 양천제2도시농업공
 • 주말농장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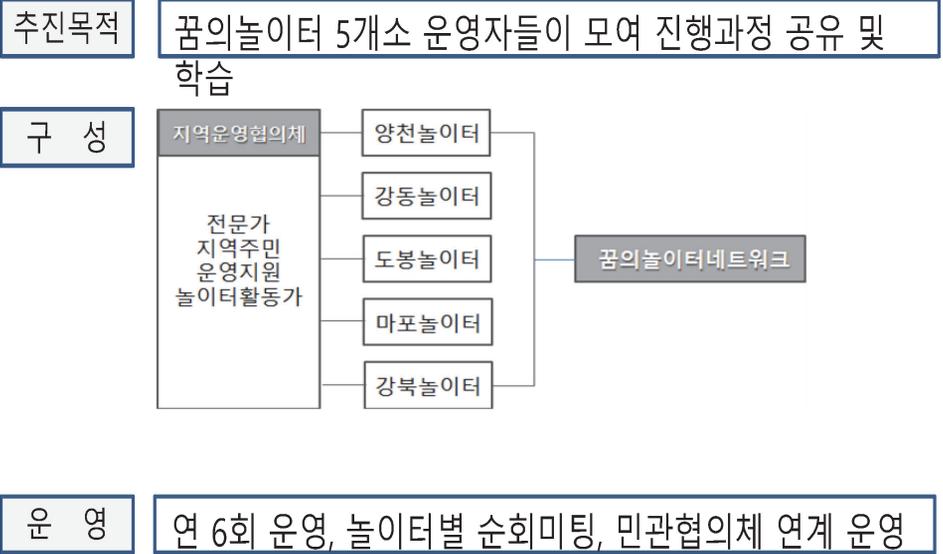
• 강동구
 • 암사역사공원조성 예정지
 (3만3천평중 공동체정원 3천평 시범사업공간 내)
 • 공동체정원사업 연계 마을놀이터 활동



• 강북구
 • 별리어린이공원
 • 장애우대상 놀이활동



과업수행부문 꿈의놀이터 운영협의체





추진방향

가변형 공간

재활용품

어린이 주도

전문가 참여

부모와 함께

놀이과정

조성유형

서양별
용



노작형



자연재
료



세탈등
품



건축형



05 강동암사역사공원 "다다다놀이터"

꿈의놀이터가이드라인 V. 1
(사)자연의벗연구소



구분	세부내용
이름	다다다놀이터
위치	강동암사역사공원
크기	200평
조직	강동공동체정원 주민조직으로 구성
공간 특징	돌놀이터, 목공놀이터, 흙놀이 터 조성
주요 활동	목공, 흙놀이 등

05 강동암사역사공원 "다다다놀이터"

꿈의놀이터가이드라인 V. 1
(사)자연의벗연구소



05 강동암사역사공원 "다다다놀이터"

꿈의놀이터가이드라인 V. 1
(사)자연의벗연구소



05 마포구노을공원 "자람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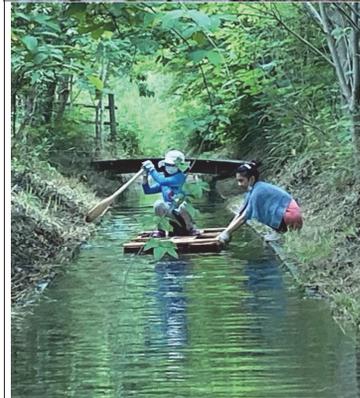
꿈의놀이터가이드라인 V. 1
(사)자연의벗연구소



구분	세부내용
이름	자람놀이터
위치	마포구월드컵공원(노을)
크기	300평
조직	노을공원시민모임(숲)
공간 특징	텃밭, 수로를 놀이공간으로 개 조
주요 활동	수로활용 물놀이, 짚라인, 텃밭, 연못만들기 등
어린이꿈 놀이단	24명 외 다섯손가락 8명

05 마포구노을공원 "자람놀이터"

꿈의놀이터가이드라인 V. 1
(사)자연의벗연구소



05 마포구노을공원 "자람놀이터"

꿈의놀이터가이드라인 V. 1
(사)자연의벗연구소



05 마포구평화의공원 "아람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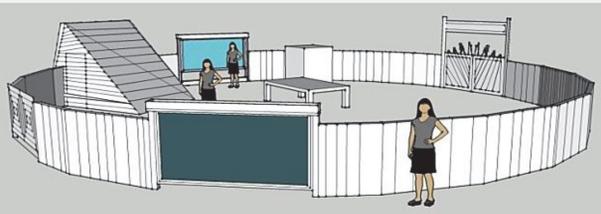
꿈의놀이터가이드라인 V. 1
(사)자연의벗연구소



구분	세부내용
이름	아람놀이터
위치	마포구월드컵공원(평화)
크기	300평
조직	자연의벗연구소
공간 특징	공원 유치원 (잔디, 숲, 평지, 울타리)
주요 활동	울타리꾸미기, 목공놀이터, 생 활잡화 팝업놀이터
어린이꿈 놀이단	24명

05 마포구평화의공원 "아람놀이터"

꿈의놀이터가이드라인 V. 1
(사)자연의벗연구소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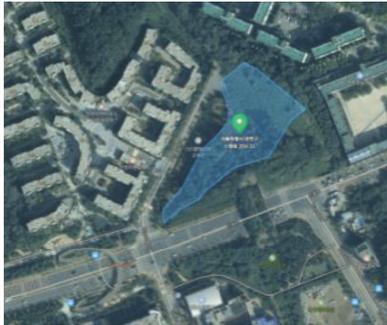
05 마포구평화의공원 "아람놀이터"

꿈의놀이터가이드라인 V. 1
(사)자연의벗연구소



05 양천구제2도시농업공원

꿈의놀이터가이드라인 V. 1
(사)자연의벗연구소



구분	세부내용
이름	양천구제2도시농업공원
위치	양천구 신월동 아파트단지 인근
크기	300평
조직	자연의벗연구소 (마을활동가)
공간 특징	도시농업공원(텃밭), 숲 교회뒷산
주요 활동	트리하우스 활용 집라인, 공간 탐험, 오르기, 땅파기 등 지형활용 원체험
어린이꿈 놀이단	28명

61

제안내용

놀이터활동가 양성

- 놀이터활동가 교육 기초활용 커리큘럼 개발
- 놀이터활동가 양성 교육
- 놀이터활동가 선발

놀이터협의체 운영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구성 (10여명)
- 회의, 워크숍, 연구, 현장모니터링, 기획 등 다양한 역할 수행
- Let's Play SEOUL 민간 네트워크 출범

움직이는놀이터 운영

- 놀이터활동가 활용
- 20개소 움직이는놀이터 운영

Let's Play SEOUL

- 플레이서울포럼 (국제/국내)
 - 플레이서울 워크운영부스, 사례공유, 놀이시연 등
- 추제의장

기대효과

● 마을어린이놀이터 활성화

- ▶ 공원을 중심으로한 지역사회의 공유 정신 제고
- ▶ 방치된 우범지역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주민안정성 확보

● 민간 협의체계 구축

- ▶ 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협의체계 구축
- ▶ 공원(놀이터) - 프로그램(놀이) - 관계(활동가) 체계 마련

● 아동을 위시한 전 세대의 놀권리 보장

- ▶ 야외놀이를 통한 신체발달 증진, 사회성 제고 및 스트레스 해소 효과
- ▶ 도시 속 삶에 여유를 갖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전세대의 놀권리 보장

발제 3

생태영유아교육, 한국사회에 던진 화두와 앞으로의 과제

발표자

▶ 김은주 |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생태영유아교육, 한국사회에 던진 화두와 앞으로의 과제*

김은주 |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생태유아교육은 그동안 무엇을 해왔나?

생태유아교육은 199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된 유아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유아교육에 깊이 자리했던 인지교육, 가르치는 교육, 수업중심 교육, 실내중심 교육을 감성중심 유아교육, 진정한 놀이중심 유아교육, 따뜻한 돌봄과 배움의 유아교육, ‘밖으로밖으로’ 나가는 유아교육으로 돌려놓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유아교육이라는 단어 앞에 ‘생태(Eco)’를 붙임으로써 아이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하는 ‘유아교육의 본질 찾기’에 대한 선언적 의미, 실천적 의미를 가집니다. 아이들이 타고난 생명의 본성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난대로 결대로 기르고자 하는 교육이며, 이를 위해 자연과 놀이와 아이디어를 되찾아주고자 노력해온 한국의 자생적 유아교육철학자, 우리 조상들의 육아지혜에 바탕을 둔 생명살림의 유아교육이 생태유아교육입니다.

생태유아교육이 한국 유아교육현장에 빨리 뿌리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주장이 ‘유아교육의 본질 찾기’에 닿아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아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의 행복에 있습니다. 생태유아교육은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유아교육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 유아기를 보내고 있는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유아기의 대부분을 보내는 아이들은 그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다 빨리 많이’를 외치는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유아교육현장에서 지금 무엇을 강조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생태유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리잡은 것입니다.

생태유아교육은 이 땅의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자연과 놀이와 아이디어를 되찾아주어 건강하고 행복하며 생명력 넘치는 ‘신명나는 어린이’로 키우고자 달려왔습니다. 신명나는 아이들에게는 신명나는 세상이 필요합니다. 전지구적 위기를 가져온 현대 산업문명의 최대 피해자로 대두된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려면 유아교육의 패러다임 역시 가르치는 교육에서 돌보고 살리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따라서 생태유아교육에서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생명을 보살피고, 기르고, 관계를 맺어주는 것으로 ‘살림의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살림의 교육’은 아이살림, 교육살림을 통해 궁극적으로 생명살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생명

1) 본 원고는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2022.11.19. 부산대학교)에서 발제한 내용의 일부를 사용하여 재구성하였음

살림은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세상을 향합니다. 생태유아교육은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생명 공동체,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람공동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아이행복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 '신명나는 세상'을 꿈꾸는 교육인 것입니다.

생태유아교육이 던진 메시지는, 교사와 연구자를 통해 현장을 바꾸었습니다. 바깥놀이터의 바닥을 우레탄에서 흙으로 바꾸고 아이들의 식단을 친환경 식자재로 바꾼 유아교육기관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이들은 숲이나 바깥놀이터에서 더 많은 시간 놀게 되었고,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동생들과 떠들며 노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장의 분위기는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을 진정한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바꾸는데에도, 유아교육현장에 환경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도 큰 힘을 보탰다고 자부합니다.

생태유아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해온 사람으로서,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환경에 대한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어주신 육아정책연구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런 귀한 자리에서 생태유아교육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생태유아교육이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와 과제'라는 주제를 받아들고, 저의 시선이 아닌 외부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생태유아교육 현장을 소개한 TV 프로그램을 찾고, 언론 기사를 찾고, 블로그를 찾고, 관련 연구물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들을 정리하며 앞으로를 꿈꿔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본 원고는 그 시간 속에 얻은 결론입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생태유아교육이 유아교육현장에 던진 첫 번째 화두는,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태유아교육의 실험적 시발지인 부산대부설어린이집은 1995년 개원할 때 “아이들에게 자연과 놀이와 아이다움을 되찾아주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대학 캠퍼스로 산책을 갔습니다. 처음 산책을 나갈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나 교직원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유아교육은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위험한데 왜 굳이 바깥에 나가서 놀게 하냐고, 어린이집 내에 모래놀이터가 있으니 캠퍼스로 나오지 말고 거기서만 놀면 좋겠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소리에 시끄러워서 연구가 힘들다고 전화하는 교수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도 ‘나가서 놀 권리’가 있다고, 캠퍼스를 누릴 자유가 있다고 설득해가면서 산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태유아교육이 실천해온 “밖으로 밖으로” 운동은 아이들의 일상을 바꾸어놓았습니다. 실내에서만 머물던 아이들에게 밖의 신선한 공기를 주었고, 자연과 교감할 기회를 주었고, 체력을 기르게 해주었습니다. 바깥놀이터와 텃밭, 대학 캠퍼스를 누비고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은 TV프로그램으로, 언론기사로 다루어져서 전국에 생태유아교육을 알리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에서 언론 기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비가 오든, 날씨가 춥든 매일 2~3시간씩 이뤄지는 **바깥놀이**는 이 어린이집의 철학을 잘 보여준다. 바깥놀이 시간에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놀잇감은 흙과 모래, 물이다. 집에서 가져온 찌그러진 냄비와 후라이팬 등에 모래를 퍼담거나 흙에 물을 뿌려가며 놀다 보면 아이들은 어느새 흙투성이가 된다. 아이들이 맘껏 모래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해마다 학기 초에 바깥놀이터에 8톤 트럭 한 대 분량의 모래를 깔아 준다. 덕분에 아이들의 옷과 신발에는 늘 모래가 가득하다. 놀이터 한가운데에는 학기 초에 흙으로 산을 만들어 놓는데, 8월께가 되면 다 무너져 내려 흙산을 다시 쌓아 줘야 할 정도로 아이들 '등쌀'에 '몸살'을 앓는다. **산책**과 텃밭 가꾸기도 특별한 날에만 하는 행사가 아닌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영아반은 매일, 유아반은 1주일에 2~3차례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2~3시간 동안 산책을 나간다. 어린이집 복도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부산대 산책지도가 걸려 있다. 아이들은 자주 다니는 대학 캠퍼스 곳곳에 풀벌레마을, 야생화나라, 주라기공원 등 자기들만의 이름을 붙여 놨다. 아이들은 어린이집 정문 바로 앞에 있는 50평 가량의 **텃밭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다. 텃밭에서 사용할 거름도 아이들 손으로 직접 만든다. 수확한 작물로 손수 간식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한겨레 2008.02.18.>

한글 교육이나 영어 교육 같은 학습 관련 교육은 일절 하지 않고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놀게 하는 생태유아교육현장의 모습이 신선했는지 여러 언론매체에서는 특집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부모들도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위험할지 모르다며 걱정하던 부모들이 아이들의 변화하는 모습에 바깥놀이 지지자로 변한 것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밖에서 또는 자연에서 놀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부모들이 늘어날수록 생태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습니다. 아래에서 부모들이 쓴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태유치원이라고 해서, 부산대학교부설어린이집이 생태교육을 하는 곳이긴 한데.. 제가 부산에 살 때, 별이 그곳에 보내려고 알아봤더니.. 교직원 우선인데다가, 태어났을 때부터 대기를 해도 안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이 들더군요. 직접 밭도 가꾸고,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님이 동화책도 읽어주고.. 보육이지만 보육의 가면을 쓴 교육이 주가 된 일반 어린이집 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 보여 꼭 보내고 싶었던만 씁..”

- 학부모 개인 블로그 <https://blog.naver.com/leybsh/220519389610> 독서 소감문 중에서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이 숲으로 자연으로 흙으로 바뀐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제 변화하려는 유아교육 앞에 우리 아이가 있다는게 영광이고 행복이고 이 모든 실태와 실상을 부모들이 알고 선택하고 변화를 요구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 학부모 개인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yunkyunghye> 부모 교육 후기 중에서

“내가 잠시 잊고 살았던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움,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명강의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강의를 듣고 나면 항상 현장에서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 인가가 고민이 된다. 오늘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

- 학부모 개인 블로그 <https://blog.naver.com/joycookk/221278740930> 부모교육 후기 중에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생태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국에 수많은 유치원들이 생태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저 또한 아이가 OO유치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생태교육을 하지 않는 유치원에 아이를 보냈기에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이에게 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가 밖에서 또 자연에서 얼마나 뛰어놀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고.... (중략)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이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라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OO유치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skk4232/221668212336> 부모교육 소감문 중에서

바깥놀이나 숲산책에 대한 생태유아교육에서의 실천은, 바깥놀이터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의 숲길을 새로 조성하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를 통해 아이들의 놀이공간과 삶의 공간에 대한 주제를 다룸과 동시에, 전국의 유아교사들과 함께 일본의 바깥놀이 현장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모여서인지 우레탄으로 바닥을 설치했던 유아교육기관들이 놀이터를 흙땅과 흙산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단조로웠던 아이들의 바깥놀이에 흙과 물이 더해져서 놀이가 풍성해졌고 오랜 시간 놀아도 지겹지 않는 소꿉놀이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놀이중심 유아교육과정의 시작을 준비하는 서막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부산대 부설 어린이집 아이들이 놀이터에 흙을 쌓아 만든 흙산에서 물을 부으며 놀고 있다.
출처: 한겨레(2008.02.18.) 자연과 놀고 자연을 먹으니 '건강한 동심'

생태유아교육이 유아교육현장에 던진 두 번째 화두는, 바로 “놀이”입니다.

유아교육에서 너무나 당연시 해왔던 ‘놀이’라는 단어를, “놀이를 되찾아주자”라는 말로 유아교육 현장에 다시 소환한 것이 생태유아교육이었습니다. 생태유아교육기관의 산책, 바깥놀이, 텃밭 등 현장에서 시도된 실험들은 언론을 통해, 그리고 부산대학교부설어린이집의 사례를 담은 책을 통해

(1999년 발간된 『애들아, 산책 가자』는 현장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 사회에 알려졌고, 그 속에서 신나게 노는 아이들의 모습도 함께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사는 생태유아교육의 핵심이 결국 생활 속에서 놀이를 발견하는 것임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비싼 장난감을 사주지 않아도, 매년 전력 질주하듯 격렬하게 놀아주지 않아도 되는 놀이법. 부모들이 꿈꾸는 놀이법이랄 수 있겠다. **생태유아교육에서 지향하는 바가 그렇다. 생태유아교육은 자연 속에서 아이들을 놀게 하고, 생활 속에서 놀이를 발견하는 것이 핵심 개념**이다. (중략) 아이들은 나뭇가지 하나를 쥐고서도 무궁무진하게 논다. 자연은 미완성의 장난감이라 아이들의 상상력으로 완성시키는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다. 나뭇가지가 칼이 되고, 요술봉도 되고, 연필도 된다. <부산일보 2012.07.20.>

이처럼 기자들은 언론 기사를 통해 생태유아교육을 나름의 관점에서 잘 소개해주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발제를 준비하면서 찾아본 언론 기사 목록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상업화된 장난감 없이 생활하는 아이들이 신기해서 취재를 했더니, 정말 잘 노는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을 이렇게 잘 놀도록 해주는 운영철학이 무엇일까 하고 보니 '생태유아교육'이라는 한국의 토종 유아교육 프로그램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이나 유럽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접목해보던 것에 익숙하던 한국의 유아교육현장에 이러한 기사는 꽤 신선한 충격이 되었을 거라 짐작해봅니다.

일자	기사제목	기사출처
2004.05.04.	KBS 1TV 어린이날 다큐, 장난감 조명	연합뉴스
2008.01.23.	[일본 생태유아교육 현장을 가다] <하>먹을 거리	부산일보
2008.02.16.	생태유아교육 엄마들 입소문에 몇 년씩 대기	부산일보
2008.02.18	자연과 놀고 자연을 먹으니 '건강한 동심'	한겨레
2008.03.21.	어린이집서 동화구연 '할머니 선생님' 류옥희 씨	부산일보
2012.03.02.	쭉쭉쭉, 잼잼, 불아불아... 할머니 손길은 과학입니다	부산일보
2012.07.20	[유아와 제대로 놀아주는 법] 놀이동산보다도, 아이는 엄마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좋아해요	부산일보
2013.04.09	"아이를 닭장 밖에서 토종닭으로 키우세요"	부산일보
2015.05.05.	요정과 노는 어린이집 아이들	한겨레
2015.12.13	"자연에서 뛰놀게 하는 '외할머니 교육법' 절실"	국제신문
2016.05.29	놀이터의 변신... "자연과 함께 놀아요"	브릿지경제
2018.12.18.	"생태적 교육이 들어와야 논산 유치충고 교육이 변할 수 있다"	중도일보

부모들도 화답을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놀고 건강하게 잘 자란 덕에 부모들은 생태유아교육에 관심을 갖고 더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들여다본 결과, 부모들이 유아기 놀이의 가치를 발견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유아교육 학계에서 놀이를 강조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정작 부모들은 조기

특기교육 학원이나 방문학습지 교사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현재를 보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큰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태유아교육에서는 부단히 영유아의 현재인 ‘지금여기’를 보자고 주장했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등하원 차량을 운영하지 않고 부모들이 유아교육기관 깊숙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노는 모습에, 행복해하는 모습에 부모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생태유아교육기관에서 학기 초에 실시하는 부모교육 강연을 듣고 부모들이 올린 블로그 후기 중 일부입니다.

“추적관찰 결과를 보면 유아기에 자연을 많이 접하고 놀이를 스스로 찾아서 한 아이들이 학습한 아이들에 비해 학년에 올라갈수록 학업성취도, 사회성 등 많은 부분에서 뛰어난 결과를 보였다고 한다. (EBS 다큐멘터리 전통육아의 비밀 참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결과대로 아이의 능력 신장에 좋다고 하니까 생태육아를 선호하는 부모들도 있겠지만, 나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사실 통계라는 것은 표본집단이나 통제변인, 조사시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도 하고) 내 아이가 지금 이 순간 유아기 때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생태유아교육을 지지한다.”

- 학부모 개인 블로그 <https://blog.naver.com/lovenovember/221652807823> 부모교육 후기에서

“생태유아교육을 오래 받은 아이들일수록 다양한 발달 지능과 발달 단계에 앞선다는 연구 결과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의 상식을 깨는 결과였으니까요. (중략) 2020년에는 유아교육과정에 생태교육이 포함되었다는 소식과 많은 아이들이 생태유아교육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 OO유치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skk4232/221668212336> 부모교육 소감문 중에서

부모들은 놀이의 학습적 효과에 내심 놀라면서도, 한 단계 더 나아가 ‘유아기의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생태유아교육을 지지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동안 생태유아교육에서 강조해온 것을 정확히 부모들이 알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태유아교육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은, “아이행복세상”입니다. 부모들의 이런 호응은 생태유아교육이 추구하는 아이행복세상의 확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시작된 생태유아교육의 열풍은, 부산시 교육청의 ‘유아숲생태교육’으로, 서울시의 ‘생태친화보육’으로, 세종시 교육청의 ‘세종형 생태유아교육’으로 지역을 넘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태유아교육은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중심 교육이 실행되기 이전부터 시작되어 한국의 유아교육현장이 진정한 놀이중심, 아이중심 교육에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인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개정 전에 발간된, 다음의 누리과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현재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생명, 삶, 놀이, 유아의 의미있는 경험 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운영 사례**에서도 놀이교육과정의 스펙트럼이 존재하며 **자유놀이의 다양한 실험으로서** 공동육아, **생태유아교육**, 발도르프 교육,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 프로젝트 접근은 유아의 삶과 존재를 바라보는 **다양한 놀이교육 접근으로 존중될 필요**가 있음.

- 2019년 발간된 교육부의 누리과정 개정 정책연구 보고서 p.42에서

생태유아교육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도 자유놀이가 잘 이루어진 사례가 있으니 누리과정 개정은 진정한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 누리과정이 공포된 이후 생태유아교육은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현장지원 자료인 놀이사례집 제작에도 참여하여 생태놀이를 알리는데 앞장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생태유아교육에서 아이들에게 ‘놀이를 되찾아주고자’ 노력해왔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생태유아교육이 던진 화두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연 “살림”입니다.

제가 2003년 발표한 박사학위논문(‘생태유아교육의 사상체계 및 실천원리 연구’)에서 **생태유아교육의 목적은 “살림교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유아교육에서 전인발달과 전인교육을 말할 때 생태유아교육은 병든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살림교육이 되어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아이만 잘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도 살리고 교육도 살리고 생명도 살리는 일**에 유아교육이 앞장서야 함을 뜻합니다. 그동안 유아교육은 너무 ‘유아’만 바라보았습니다. 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교수법,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는 교재교구의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육의 주체로 바로 서야 할 교사와 부모는 유아교육의 주변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생태유아교육에서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이의 놀이와 건강과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가야됨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가 지구환경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생명살림’**에도 앞장 서는 것이 유아교육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유아교사들은 코팅지를 사용하지 않고 플라스틱 물건을 자제하고, 물티슈 대신 천걸레와 손수건을 사용하고, EM용액으로 청소나 소독을 하고, 정례적으로 지역 하천에 EM공 던지기를 실천하는 등 지구생태계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생태유아교육의 이러한 목표 설정은 우리 사회뿐 아니라 유아교육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영역을 돌아보게 했고 변화하게 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 먹기 운동이나 천연 소재의 원복 입기운동이 그 좋은 예입니다. 영유아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먹이기 위해 전국에 생태유아공동체를 결성하여 유기농 먹거리 실천운동과 도농교류 등 생태적 식생활 교육운동 등을 통한 문화운동도 함께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좋은 게 먹거리**입니다. **바른 음식, 건강한 음식만 먹여주십시오.** 불량식품은 다 집에서 먹입니다. 낳은 엄마인 저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잘 먹여주십시오. 과자나 사탕 같은 거, 인공조미료나 색소 들어간 거 일절 안 먹이고요. 생일날도 케이크 대신 떡 해서 가고, 소풍날 김밥에 단무지도 못 넣게 하시던데요. 그렇게 먹으면 심심해서 안 먹을 거 같은데 애들이 하도 뛰고 놀아서 그런지 밥도 집에서는 입이 짧아 안 먹는 애들이 어린이집에서는 참 잘 먹어요.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치약이 아니라 소금으로 양치**하고요. 그런 생활방식이 좋다는 건 알지만 실천하기 어려운데, 사실 그렇게 먹이려면 더 품이 들고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도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굳이 번거로운 길을 택해서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참 고맙습니다.

-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부모(하지원) 토론문 중에서

“아이들이 직접 자연을 느끼고 체험하는 오감만족 **생태프로그램은 자연스러운 식습관 개선으로 이어지는 등 부가적 효과도 거두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런 **생태친화보육에 대해 큰 만족감을 나타내며 적극적으로 어린이집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 새서울신문 블로그 <https://m.blog.naver.com/coreap6/222147526934>

생태적 식생활 운동은,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한 생명밥상 살리기 운동이 아이의 건강을 살렸을 뿐 아니라, 부모들에게 생태유아교육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아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생태적 먹거리는 생태유아교육기관에서의 메뉴 삶기, 김장하기 등의 행사를 통해 먹거리에서 나아가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부모들이 알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도 영유아기 추억의 한 장면으로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처음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키며 조금 놀라웠던 것은 보통의 유아기관에서 보이는 딱딱한 플라스틱 교구가 아닌 한 손에는 뱀비와 다른 한 손에는 손가락을 들고 다니며 엄마들의 걱정 따위는 뒤로 물린 채 황토 모래성을 오가며 뛰어다니는 모습은 지금도 너무나 생소했던 기억이기도 하였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저로써 당시 유아교육은 모두 지식 위주의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자연놀이 (생태적 관점으로 수업을 하는 유아교육프로그램)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에 놀라웠고 특히 이상적으로 좋다고만 생각하였던 생태유아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에도 다시 한번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중략) 특히 어린이집에서의 절기마다 **세시잔치(추석, 설날, 상달, 동지), 어울림 한마당, 한 여름밤의 음악회, 현장학습, 그밖에 졸업 전시회, 메뉴 삶기, 김장하기, 감사의 날, 소방대피훈련 등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행사와 수업이 나는 많은 추억들은 지금도 아이들과 밥상머리에서 일상처럼 꺼내는 아련한 추억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부모(최성이) 토론문 중에서

생태유아교육이 한국 유아교육현장에 비교적 짧은 시간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생태유아교육을 경험한 이러한 부모들의 입소문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생태유아교육을 실천하는 동안 많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졸업을 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주는 부모도 있었고, 감사 메일을 보내는 부모도 기억납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글은 한 아버님이 담임교사가 쓴 석사학위 논문(‘아버지의 어린이집 연락장 쓰기 경험의 의미 탐색’)을 자발적으로 찾아서 읽고 지도교수인

제제도 보내준 편지글의 일부입니다. 아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서로 '생태'라는 가치를 나누는 경험들을 통해 가치있는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는 부모 스스로의 자발적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부모 역시 진정한 육아 동반자가 되고 싶어함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생태교육기관에 아이들이 다니는 것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가 위와 같은 '아이 중심의 스스로 깨우치고, 체험하고 유도하는 프로그램' 이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심정과 왕성한 호기심 충족 욕구, 체력배양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또 다른 중요 사실은 **부모-교사 간 지속적인 면대면 소통 노력을 통한 교사-아이-부모의 공감능력 향상에 따른 교육참여자의 자발적 동기부여, 그에 따른 부모(특히 아버지의 참여-세시풍속 및 연락장 작성)에 있다.** (중략) 초기에는 너무 일이 바쁜 부모들을 불러 모은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학부모들도 많았으나, 이제 엄마 아빠와 손잡고 떡을 치고, 연을 날리고, 팽이를 돌리며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유년 시절 부모님과의 추억을 내 아들 딸들은 새로이 추억저장고에 써나가는 개척 진행형인 것 같아 항상 흡족해하며, 특히 선생님과 함께 일방적 시청 제공인 재롱잔치가 아닌, 떡을 빚고, 씨름 심판을 봐주고, 목마놀이를 하면서 참여에 따른 어울림으로 인간적 관계로 변모되어 늘 어렵다는 선생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전자의 사적 교류 활동에 의한 공감능력이 발달되어 교사에 대한 배려 향상으로 어린이집 행사에 보다 적극 참여하게 되는 동기를 환류하고 있다. (중략) 어린이집 행사에도 교사의 고충을 심분 이해하고 **공동육아를 즐기는 파트너**가 될 것이다.

- 생태유아교육기관 자원 학부모가 보내준 편지글 중에서

이러한 부모들의 반응은 부모와 함께 '교육살림'을 실천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함께 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통해 유아교육을 살린 것입니다. 또한 자연의 순리, 조상의 지혜대로 아이를 키워온 생태유아교육의 가치가 있었기에, 유아교육기관이 중심이 되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육아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명살림과 교육살림은 '아이살림'으로 이어졌다고 자부합니다. 생태유아교육기관 유아들의 체력을 일반유아교육기관 유아와 비교연구 한 적이 있는데, 유연성, 평형성, 민첩성, 순발력, 근지구력, 근력이 모두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투약횟수를 비교해본 결과, 일반유아교육기관의 아이들에 비해 약을 거의 먹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대부설어린이집 아이들의 미술작품을 분석해서 방영한 EBS 다큐프라임 (2012.01.04.) [오래된 미래, 전통육아의 비밀]에서는, 아이들의 그림에서 포레 아이들보다 인지적으로 뛰어나고 강한 내면의 자신감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저 잘 놀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공간을 마련해주고, 여러 사람들이 어울리도록 관계를 맺어준 것뿐인데 아이들은 스스로, 더불어 잘 자라주어 아이살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실천해온 **생명살림·교육살림·아이살림** 운동을 제일 잘 알아준 것은 역시 아이들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매일 가는 숲의 풀들이 자기들로 인해 죽어간다면 안타까워하면서 "선생님. 한 곳에만 있지 말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해요."라고 먼저 제안한 것도 아이들이었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 감사기도를 만들어보자는 선생님의 제안에 자연에 먼저 감사하자고 말한 이도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식사 감사기도를 들어볼까요?

“햇님 땅님 농부아저씨 생명의 밥상을 차려주시고, (조리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 KBS부산(2019.12.03.,) [오늘도 무사] 케냐의 남자 '무사' 어린이집을 가다_EP 01.

햇님 땅님부터 시작해서 농부아저씨, 조리사 선생님이 다 등장하는 아이들의 식사 감사기도를 듣고 있으면, 사람과 자연이 한 생명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아이살림**을 통해 **농촌살림과 생명살림**을 이뤄내고자 했던 생태유아교육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은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지구환경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하여 생태적 세계관에 기초한 유아교육을 하고자 했던 실천의 결과일 것입니다. 생태유아교육을 경험한 학부모의 생각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걸보기에도 다른 곳이란 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원복이 생활한복이고, 잘 못 들어본 절기도 잘 챙깁니다. 아이들 밥도 좋은 음식이 나옵니다. 산책을 자주 하고, 벗고 풍욕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남들도 흉내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흉내 낸다는 표현을 쓴 것은 걸모양은 같을지라도 그 영향 또는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육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생태유아교육은 가치관 내지 세계관이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위의 **흐뭇한 광경들은 그러한 가치관 내지 세계관의 결과이겠지요.**

그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하셨겠지만, 제 짧은 소견으로는 ‘생태’라는 것은 자연과 가깝다, 자연 그대로라는 뜻일 것이고, 그렇다면 요즘 득세하는 성과나 효율이라는 가치, 그리고 그를 위한 무한경쟁과는 반대되는 것이겠지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그리고 그 결과 이루어지는 다양성과 같은 것들이 생태적인 것이겠지요. **그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교사와 학부모가 하는 교육이 생태유아교육인 것 아닐까요.”**

- 2013년 6월 15일 본 학회의 춘계학술대회에서 학부모(조정민)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누리과정, 아이와 교사를 행복하게 하는가?」에서 생태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학부모에게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부모의 입장을 청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태기관에 다니면서도 생태유아교육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다니다 보니 가치관과 세계관의 결과가 걸보기에 다른 어린이집을 만든 거 같다고 말한 어머니의 말은 오랫동안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생태유아교육기관에 아이를 보낸 부모도 느낍니다. 생태유아교육은 가치관, 세계관의 결과라고 말입니다. 생태적 세계관을 잘 챙겨야 생명살림·교육살림·아이살림의 유아교육을 이뤄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태유아교육은 앞으로 무엇을 해나가야 하는가?

생태유아교육은 우리 사회와 유아교육현장에 여러 화두를 던졌고 의미있는 발자국을 남겨왔습니다. 그 발자국은 결국 “생태”라는 한 단어로 수렴됩니다. 우리가 해왔고, 앞으로도 해가야 할 지향

점입니다. 2003년도 즈음에 제가 만났던 기자 한 분이 “유아교육에 어떻게 ‘생태’라는 단어를 붙여 쓸 생각을 했나요? 곧 ‘생태’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핫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미리 선점을 잘 하셨네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의 말처럼, 선점하고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단어를 유아교육에 잘 안착시켰을까요?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렵다면, 우리에게 놓인 숙제가 많다는 뜻일 겁니다.

생각해보면 ‘생태’는 2022년도에도 여전히 유효한 단어입니다. 아니 더 강조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전 세계는 ‘생태백신¹⁾’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했으니까요. 따라서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두 가지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놓인 첫 번째 과제는, “생태적 실천을 위한 공동체 연대”입니다.

그동안 생태유아교육에서 주장하고 실천해온 산책, 바깥놀이, 텃밭 등은 유아교육현장에 이체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시작과 함께 유아교육현장은 진정한 놀이중심 및 유아중심 교육이 실현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 자연과 놀이와 아이다움을 주창해온 생태유아교육이 개정 누리과정과 뒤섞여 조금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태유아교육을 실천하는 기관이라고 말하면, 생태유아교육을 하지 않는 기관에서 우리도 산책 가고 텃밭 가고 아이들 놀리고 다 한다며 뭐가 다르냐고 반문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생태유아교육은 산책을 가고 세시절기를 챙기고 자연물로 놀이를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학부모의 글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생태유아교육은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릅니다. 경험해본 사람이 ‘여기 선생님은 생각이 다르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말할 때 생태유아교육은 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고 반드시 챙겨야 할 일은, “생태”입니다. 생태유아교육은 유아교육에 생태라는 단어를 붙인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유아교육이 중심이 아니라 생태가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태가 기본이 되어야 하고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을 다시 써야 합니다. 유아교육기관의 일과운영, 공간구성, 행사운영 등 모든 것에 “생태적 실천”이 우선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생태에 대한 의식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같이 책을 읽고 유아들과 생활하는 가운데 ‘생태’를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제안으로 부모들에게 보내는 한여름밤의 음악회 행사 초대장을 종이 대신 손수건으로 만든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보면서 참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생태적 실천이 쌓이고 쌓이다보면 부모들이 알아주고, 그 부모가 가정에서 물티슈 대신 손수건이나 걸레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생태적 실천이 선순환된 것이겠지요.

1) 2020년 발행된 최재천 선생님의 「코로나 사피엔스」에서 언급된 개념임

이렇듯 **생태적 실천은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 하면 쉽게 지치고 편하게 현실과 타협해버리게 됩니다. 공동체적 연대가 필요한 일입니다. 자연과도 연대하고 사람과도 연대해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태유아교육에서는 최고의 교사는 자연이라고 했습니다. 주변의 자연을 잘 찾아보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자연과 관계 맺도록 해주는 것도 생태적 실천이고, 할아버지할머니를 유아교육기관으로 오시게 하여 아이들에게 노인세대의 지혜와 여유를 알게 하는 것도 생태적 실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태적 가치가 유아교육기관을 넘어서 가정으로 우리 사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모에게 알리고 우리 사회에 알리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이를 통해 교육과 생명을 살리자는 게 생태유아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들도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부모들에게, 도시 한가운데 있을 지라도, 일에 치여 시간이 많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건이 닿는 대로 한순간이라도 충실하게 아이와 연대·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 **생태적인 육아**라는 메시지를 부모들에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도 자연의 일부이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엄마 속마음이야말로 가장 생태적이니까요(그리고 아이들을 생태유아교육기관에 보낼 수 없을지라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태적인 육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2013년 6월 15일 본 학회의 춘계학술대회에서 학부모(조정민)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

기후위기와 생명위기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위기입니다. 기후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길은,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주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유아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더욱 연대하고 생태적 실천에 앞장서야 합니다. 전국에 생태유아공동체가 결성되고, 각 단체의 회원들이 함께 노력해준 덕분에 아이들에게 바른 먹거리 제공할 수 있었고 생태유아교육이 보다 빠른 시간에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었던 사실을 귀감 삼아야겠습니다.

얼마 전 큰 히트를 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뽕 사례가 큰 울림을 준 것처럼, 고제순 선생님이 제안해주신 ‘지구구출 특공대2’를 되어 우리 사회에 생태 메시지를 던져야 합니다.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바른 가치를 향해 가야 내가 가는 길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생태유아교육에 대한 연구**”입니다.

2년 전, 부산대부설어린이집 학부모가 아이가 졸업을 하면서 제게 메일을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2)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기초발제에서 제안된 범시민 챌린지 운동임

“그래서 든 생각인데 부산대 어린이집 아이들은 매일 산책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찍은 다크멘터리에서도 부산대 어린이집 아이들 추적조사를 했더니 학업능력이 더 높다고 나온 연구결과가 나온 걸 보긴 했고, 논문을 검색을 (대충만) 해보니 전라도 쪽에서 만1세 아이들 대상으로 산책이 어휘, 의사소통 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대규모로 장거리로 산책을 하는 유아집단이 흔하지 않으니 혹시 주기적인 산책이 아이들의 공간지각능력과 수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번 연구 주제로 해 보면 재밌을 거 같아 연락을 드립니다.”

- 생태유아교육기관 졸업생 학부모가 보내준 이메일 중에서

부모님이 직접 관련 연구물을 찾아보고 연구 제안까지 하는 적극적인 모습에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편지글을 보내주신 부모님도 논문을 찾아보았었지요. 부모들도 본인의 육아에 확신을 갖고 싶었던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생태유아교육에 대한 효과검증 연구나 사례연구는,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생태유아교육기관 아이들의 체력, 건강, 창의성, 환경친화적 태도 및 생태적 감수성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산림청으로 하여금 유아를 위한 숲을 조성하게 하는 등 유아교육현장에 숲교육을 확산해 가는데 큰 역할을 한 것도 그 좋은 예입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없애주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생태유아교육을 지지하는 부모들도 아이들이 잘 놀기를 바라면서도 조금은 학습적인 부분을 해주기를 바라는 양가적 감정을 가집니다. 입시가 교육의 목적이 되어버린 한국 사회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아교육기관에서 모든 걸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유아기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자연과 놀이와 아이다움을 되찾기 주기 위해 우리가 해왔던 생태적 실천의 결과들을 계속 연구해서 그 결과를 우리 사회에 알리고 동참해 나갈 사람들과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태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적 생활 실천 교육을 열심히 해온 보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후위기 및 생태위기의 심각성이 날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기후위기가 최우선 정책 아젠다로 제시되고 있는 오늘 날의 현실에서 유아교육을 해나가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숙제일 것입니다.

“생태적 실천을 위한 공동체 연대”와 “생태유아교육 연구”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종합토론

토론 1 공존이 생존이다 ; 아기기후소송과 어린이 정치 참여

- ▶ 장하나 |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토론 2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과 ESD 인증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례

- ▶ 홍보강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팀장

토론 3 생태유아교육의 유치원 어린이집에의 적용과 과제

- ▶ 임미령 |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토론 1

공존이 생존이다 ;
아기 기후소송과 어린이 정치 참여

발표자

▶ 장하나 |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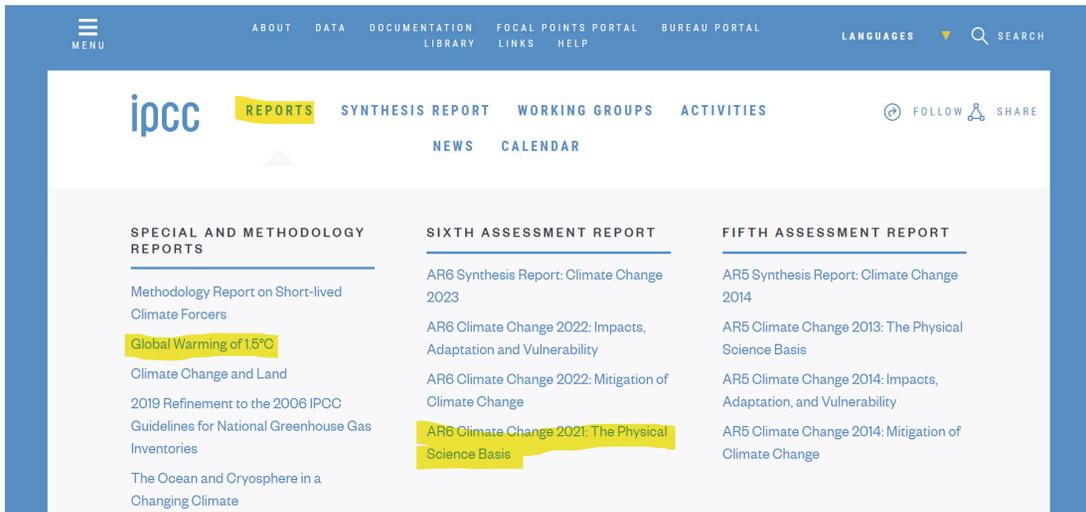
공존이 생존이다 ; 아기기후소송과 어린이 정치 참여

장하나 |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아기기후소송

-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 설립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년에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규명에 기여
 - 역할 : 전 세계 과학자가 참여·발간하는 IPCC 평가보고서(AR, Assessment Report)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정부 간 협상의 근거자료로 활용
 - * 제1차 평가보고서('90) →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채택('92.5. 리우데자네이루), 온실가스 감축·지구온난화 방지, 대한민국 92년 12월 가입
 - * 제2차 평가보고서('95)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규약) to the UNFCCC) 채택('97), 이산화탄소 등 여섯 가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규정하며 법적 구속력 가짐. 위반 국가에 대하여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 적용. 대한민국 02년 가입했으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 의무 제외.
 - 비관세장벽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쿼터·수량제한·수입 허가 절차 등
 - * 제4차 평가보고서('07) → 기후변화 심각성 전파 공로로 노벨평화상 수상(엘 고어 공동 수상)
 - * 제5차 평가보고서('14) → 파리협정(The Paris Agreement) 채택('15)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 협약.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파리협정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으로 만들기 위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55% 이상 책임이 있는 55개국에 활발한 로비. 미국·중국·브라질·인도·유럽연합 등 주요 기후변화 당사자들이 파리협정을 비준, 2016년 11월 4일부터 기후 협정 최초로 포괄적 구속력 있는 국제법으로서 효력 발효됨.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탈퇴 선언과 2020년 11월 미국의 공식 탈퇴에도 불구하고, 세계 탄소 배출의

87%에 달하는 200여 개 국가가 협정을 이행 중이며, 2021년 1월 조 바이든 미국 취임 당일 재가입.



* 제6차 평가보고서 : 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AR6)를 작성하고 있으며, AR6 주기 (2015~2022년) 동안 총 8개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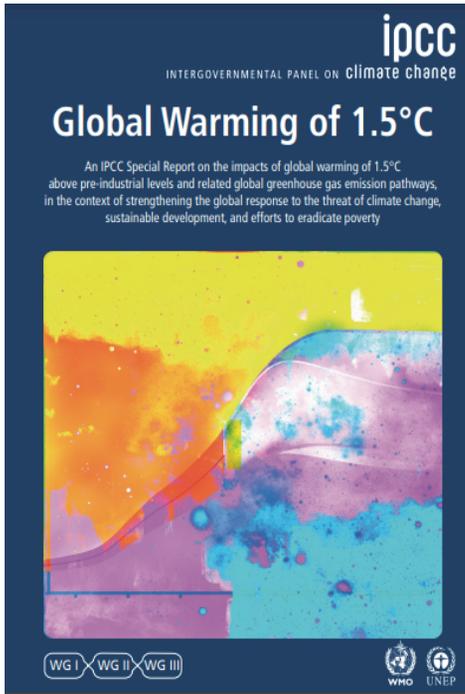
- 제1실무그룹(WG I) 보고서 : 기후변화 과학
- 제2실무그룹(WG II) 보고서 : 기후변화 영향, 적응, 취약성
- 제3실무그룹(WG III) 보고서 : 기후변화 완화
- 종합보고서 : 3개 실무그룹 보고서 및 특별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종합·평가

* 특별보고서: 평가보고서 외 특별한 주제에 대해 발행하는 보고서

- 「지구온난화 1.5℃」
- 「기후변화와 토지 특별보고서」
- 「변화하는 기후에서의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

* 방법론 보고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준비를 위한 실용적 가이드라인, UNFCCC 당사국의 인벤토리 보고에 활용됨

- 「IPCC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2006 지침 2019 개선보고서」 등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1689-01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 해설서



□ 「지구온난화 1.5°C」 주요 내용

- * (현황) 인간 활동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2017년 현재 약 1°C(0.8~1.2°C)의 온난화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
 - 최근 인위적 온난화로 인한 온도 상승 추세는 10년당 0.2°C(0.1~0.3°C)
- * (전망) 현재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2030~2052년 사이 1.5°C 초과
 - 2100년까지 전 지구 평균 온도 1.5°C 상승 제한을 위한 잔여탄소배출총량(carbon budget, 탄소 예산)은 4,200~5,800억CO₂톤
 - 파리협정에 따라 제출된 국가별 감축목표를 이행하더라도 2030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520~580억CO₂톤에 이르러, 1.5°C 달성에 필요한 배출량(250~350억CO₂톤)을 크게 초과, 2100년에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3°C 상승할 것으로 예상
- * (1.5°C 온난화의 영향) 대부분 지역에서 평균 온도 상승, 거주지역 대부분에서 극한 고온 발생, 일부 지역에서 호우 및 가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구온난화는 일반적으로 해양보다 육지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 빈곤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침
- * (1.5°C와 2°C 온난화 비교) 1.5°C 온난화 시 2°C 온난화에 비해 2100년까지 해수면이 10cm 적게 상승,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기후 영향 위험(Risk) 감소
 - 해양 온도 상승에 의한 피해(빙하 소멸, 해양생태계·연안 자원·어업 피해) 감소
 - 건강, 생계, 식량과 물 공급, 인간 안보 및 경제성장에 관한 위험 감소

- 빈곤에 취약한 인구가 수억 명 줄어들 것이며, 세계 경제성장 위험 감소

〈표〉 지구온난화 1.5℃와 2.0℃ 주요 영향 비교

구분	1.5℃	2℃	비고
고유 생태계 및 인간계	높은 위험	매우 높은 위험	
중위도 폭염일 온도	3℃ 상승	4℃ 상승	
고위도 극한일 온도	4.5℃ 상승	6℃ 상승	
산호 소멸	70-90%	99%이상	
기후영향 빈곤 취약 인구	2℃ 온난화에서 2050년까지 최대 수 억 명 증가		
물부족 인구	2℃에서 최대 50% 증가		
그 외	평균 온도 상승(대부분의 지역), 극한 고온(거주지역 대부분), 호우 및 가뭄 증가(일부 지역)		
육상 생태계	중간 위험	높은 위험	
서식지 절반 이상이 감소 될 비율	곤충 6%, 식물 8%, 척추동물 4%	곤충 18%, 식물 16%, 척추동물 8%	2℃에서 두 배
다른 유형의 생태계로 전환되는 면적	6.5%	13.0%	2℃에서 두 배
대규모 특이 현상	중간 위험	중간-높은 위험	
해수면 상승	0.26-0.77m	0.30-0.93m	약 10cm 차이. 인구 천만 명이 해수면 상승 위험에서 벗어남
북극 해빙 완전 소멸 빈도	100년에 한 번 (복원 가능)	10년에 한 번 (복원 어려움)	1.5℃ 초과 시 남극 해빙 및 그린란드 빙상 손실

※ 이 외, 극한기상, 해양산성화, 생물다양성, 보건, 곡물 수확량, 어획량, 경제성장 등에 관련된 위험(리스크) 모두 1.5℃ 보다 2℃ 온난화에서 높음(수치적으로는 제시되어있지 않음)

- * (2100년까지 1.5℃ 제한 방법)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CO₂ 배출량 최소 45% 감축 필요
- 2050년까지 전 지구 CO₂ 총배출량이 0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1,000억~1조CO₂톤의 이산화탄소흡수(CDR) 필요
- 2021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량 0(넷제로)'를 달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2.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4.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5.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8.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 무엇이 위험인가?

- * 「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에 따르면
- 2100년까지 전 지구 평균 온도 1.5℃ 상승 제한을 위한 잔여탄소배출총량(carbon budget, 탄소 예산)은 4,200~5,800억CO₂톤
- 2020년 전 세계 인구수 7,794,799,000명/한국 인구수 51,780,579명으로 한국 인구 비중은 전 세계 인구의 0.66%

- 잔여 탄소 예산은 약 28~38억CO₂톤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2018년 기준 2030년 -40%)에 따라 2018년 728백만 CO₂톤 → 2030년 437백만CO₂톤, 일정하게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량의 합만 60억CO₂톤을 상회함
- 강원도 삼척에 대한민국의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포스코 자회사) 건설 중 (2018년 착공, 2024년 준공 예정). 완공되면 2050년까지 최소 약 30년간 가동 예정, 연간 13백만CO₂톤의 온실가스 배출 예상. (문재임 대통령 재임 시 2018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완료)

□ 헌법소원 청구인단

- 2017년 이후 출생 영유아 40명, 6~10세 이하 어린이 22명, 총 62명
- 2050년 30대, 2100년 80대가 될 어린이들이 소송 청구
- 2018년 12월 제24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4) 그레타 툰베리(2003년 출생) 연설문 중 “당신들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미래를 훔쳐 가고 있다. 정치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전까지는 희망이 없다.”



- 2022년 6월 아기기후소송 기자회견 발언

“안녕하세요? 저는 흑석초 4학년 한제아입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부탁이 있어서입니다.

어른들은 환경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지만, 그건 이것과 비슷합니다.
"저 애 불쌍하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와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구를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우리 미래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진 미래에
어른들은 없고, 바로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에게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른들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인간보다 먼저 지구에 살아왔던 동물들은 인간 때문에 벌써 많이 사라졌습니다.
동물들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 지구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크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바로 지금, 탄소 배출을 훨씬 많이 줄여야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엄청난 악플 “아이들을 이용한다.” 뭘 위해서? “어른이 시킨대로 한다.” 자기 수준으로 판단.



- 2022년 11월 삼척블루파워 최초점화(시운전) 저지 기자회견 발언

“저는 3학년 어린이 활동가, 김나단입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
어른들은 어릴 때 마스크 쓰고 살았나요?

저는 어릴 때 미세먼지가 많다고 어쩔 땐 마스크를 썼어요.

그런데 여덟 살 때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갔고 밖에 나가서 뛰어놀지도 못했고, 마스크를 매일매일 쓰고 살고 있어요.

이게 다 지구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른들이 쓰다 버린 것 같은 지구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지구의 주인은 나입니다.
나와 같은 어린이들이 앞으로 계속 살 지구입니다.

어제 저는 '포스코'라는 기업의 광고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포스코'가 미래를 위해서 환경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스코'가 삼척에 엄청나게 큰 석탄발전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일 년에 천 삼백만 톤이나 되는 온실가스를 내뿜는다고 합니다.

그 광고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죽일 거면서 웃고 있는 아이는 광고에 왜 나오나요
석탄발전소 지으면 광고에 나온 그 배우도 그리고 우리도 다 죽습니다.

지구의 주인인 우리가 외칩니다.
포스코 아저씨 아줌마, 형아 누나들! 석탄발전소 당장 그만두세요.
우리가 살 지구에서 손 떼세요!"



□ 어린이 정치 참여

제1조(명칭) 이 모임은 ‘정치하는엄마들’이라 한다. 영문명은 ‘Political Mamas’로 한다.

제2조(목적) 정치하는엄마들은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7.>

제3조(사업) ① 정치하는엄마들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교육·홍보 사업 <개정 2021. 3. 27.>
2. 아동과 ‘엄마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성평등, 노동, 복지, 환경, 교육, 안전, 평화 등 제 분야의 연구 및 정책 개발 사업 <개정 2021. 3. 27.>
3. 아동과 ‘엄마들’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조직 사업 <개정 2021. 3. 27.>
4. 아동과 ‘엄마들’의 정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교육·홍보 사업 <개정 2021. 3. 27.>

- 미래세대에 온전한 환경을 물려줄 수 없음.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치하는엄마들 구성원들은 적극적인 사회 참여·정치 참여가 육아의 연장선이라는 인식하에 각자도생이라는 허구에서 벗어나 공존을 통한 안전 사회 건설을 도모
- 경쟁 교육 대신 공존을 교육함으로써 어린이들이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생존의 위협에 맞설 수 있다고 판단
- 영유아 환경 교육은 정확한 사실관계(Fact)를 바탕으로, 더 이상의 낭만성을 탈피하고 미래세대의 생존과 직결됐다는 위기감을 반영해야 함.
- 어린이들의 미래를 지키기에는 기성세대는 무지하고 무책임함. 기성세대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되 미래세대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의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고 싸울 수 있게 만들어야 함.
- 적어도 의견을 갖도록 해야 함

□ 미래가 아닌 현재의 영유아 교육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사 대상 기후 교육이 가장 시급함

토론 2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과 ESD 인증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례

발표자

▶ 홍보강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팀장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ESD 인증 유치원 및 어린이집 사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 홍보강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 모든 연령대의 학습자들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생태다양성의 손실, 빈곤, 불평등과 같이 상호연결되어있는 글로벌한 과제를 풀어가는 지식과 기술, 가치, 태도를 갖추도록 돕는 교육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4번의 통합적 요소이자, 모든 SDGs에 직접 기여.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 개요



“ESD는 양질의 교육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핵심 요소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가능케하는 key enabler 역할을 한다.”

유엔총회 결의문 72/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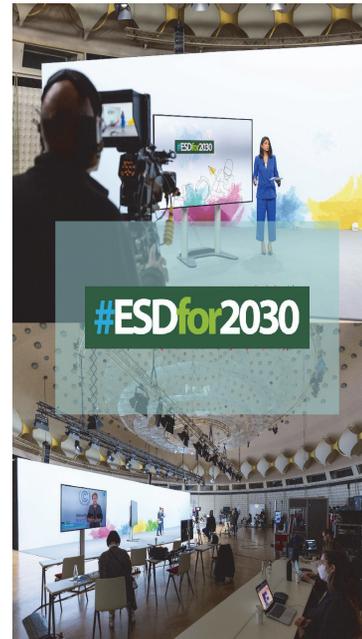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 개요

공식명칭 지속가능발전교육: SDGs 달성을 향하여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wards achieving the SDGs)

기간 2020-2030

진행

- 승인: 제74차 유엔 총회('19.9.)
- 채택: 제40차 유네스코 총회('19.11.)
- 론칭: 2021 유네스코 ESD 세계회의('21.5.)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

ESD for 2030 Initiative

17개 SDGs를 위한 교육의 역할 강조

거대한 변혁(transformation)에 집중

회원국의 리더십 강조

목적 ESD를 강화하고 SDGs 달성에
기여함으로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것

목표 정책, 학습 환경, 교육자의
역량강화, 청년의 권한부여와 참여, 지역
차원의 실천에 ESD·SDGs를 통합



핵심업



#ESDfor2030

유네스코 ESD 공식프로젝트 인증제

기간” 2011년 ~ 현재

목적: ESD를 한국적 맥락에 걸맞게 이행한 ‘한국형 ESD 모델’을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2011년부터 해당 인증제를 운영

내용: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재인증 신청 가능

※ 2022년 11월 현재 84개의 공식프로젝트가 인증 유효함.

- 2022년도 인증제 공모·심사 (신규 인증 25건, 재인증 16건)

- 2022 ESD 한마당 개최(9.30)

ESD 인증프로젝트 사례 -춘천은빛유치원

프로젝트명: 기쁜날! 좋은날!

인증년도: 2022

목적: 삶의 가치와 기쁨을 알리고 ESD와 가정 연계

활동

- 매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제로 놀이와 활동
- 연말에 총괄적으로 지역과 함께 플리마켓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나눔 실천



ESD 인증프로젝트 사례 - 금호유치원

프로젝트명: 놀멍, 쉬멍, 걸으멍 제주 프로젝트

인증년도: 2022

목적: 지역공동체에 대한 자긍심과 문화보존 태도 형성

활동

- 궁금한 제주어를 조사, 제주어 책과 그림책 제작
- 유아들에 의해 제안되어 매년 이어져 내려오는 제주어 동요 대회
- 부모와 함께 찾아가는 제주(명소 탐방)



ESD 인증프로젝트 사례 - 동영유치원

프로젝트명: 목화 프로젝트

인증년도: 2021

목적: 유아의 목화 재배를 통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
지속가능한 사회 구성

활동

- 식물의 전 생장과정을 느끼는 과정 중심 교육
- 목화 '1인 1화분'으로 부모 교육, 지역사회단체 기부, 전국 유아교육기관 목화 나눔 등



ESD 인증프로젝트 사례 - 베타니아특수어린이집

프로젝트명: 숲을 품은 아이들

인증년도: 2016

목적: 장애아동이 차별 받지 않고 자연과 하나될 수 있는 경험 제공

활동

- 장애아동이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행복을 느끼고, 자연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
- 훼손되고 있는 자연을 되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직접 실천



ESD 인증프로젝트 사례 - 김해어린이집

프로젝트명: 탄소중립생활실천 프로젝트

인증년도: 2022

목적: 지구환경의 위기를 알고 탄소중립활동 실천

활동

- 3Go녹색캠페인과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교육
- 영유아,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24개의 “하고 슬로건”을 통한 실천 캠페인과 놀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젝트



토론 3

생태유아교육의 유치원 어린이집에의 적용과 과제

발표자

▶ 임미령 |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생태유아교육의 유치원 어린이집에의 적용과 과제

임미령 |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들어가며

앞서 김은주 교수님께서 생태유아교육 전반에 관한 발제를 해주셨기에 본 토론자는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에서 그동안 실천해 온 친환경 급식 운동과 생태 유아교육의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는 친환경 급식과 생태유아교육 운동을 통해 아이들의 몸·마음·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땅과 농업을 살리며, 나아가 지구촌의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03년 수도권의 교육자, 학부모, 시민들이 함께 모여 결성한 '교육 생활협동조합'입니다.

1.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의 친환경 급식 운동 : '죽음의 먹거리'를 '생명의 먹거리'로 바꾸다!

영유아기는 일평생 살아갈 토대가 되는 몸과 마음을 만들어 가는 시기입니다. 영유아들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먹거리를 통해 자신의 몸을 만들고 자신이 살아갈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마음과 영혼을 키워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시기의 먹거리는 아이들에게는 생명의 젖줄이자 세상과 이어 주는 텃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오히려 심각한 오염과 먹거리의 지나친 상업화로 인해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이들의 먹거리를 바꾸지 않으면, 만 가지 교육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친환경 급식을 생태유아교육 운동의 중심에 놓게 되었습니다.

2004년 1월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밥상을 차리자.'라는 주제로 서울 YMCA 양곡은행 및 서울시 보육시설연합회와 공동 협약을 맺었고, 같은 해 4월에 성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와, 그리고 2005년에는 도봉구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와 함께 협약식을 맺으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본격적인 친환경 급식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에 유기농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전무했기에 생활협동조합을 직접 설립하게 되었고, 이로써 농촌의 농부님들과 도시의 아이들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본격적인 농촌 살림·아이 살림의 운동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는 조합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7가지 원칙을 만들어 이를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농업 그리고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생명의 원칙 : 건강과 생태 보전 우선
2. 무농약의 원칙 : 화학 물질이 없는 식자재 우선
3. 제철 식품의 원칙 : 영양이 풍부한 식자재 우선
4. 화학첨가물 배제의 원칙 : 안전한 식품 공급
5. 국내산 지역농산물의 원칙 : 농업인 보호
6. 생산자 직거래 원칙 : 농업인과 상생
7. NON - GMO, 무항생의 원칙

이러한 ‘생태유아공동체’의 친환경 급식 운동은 단순히 먹거리만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계절마다 다양하게 진행되는 농촌 체험, 모심기에서 시작해 가을걷이 그리고 원에서 농부님들과 함께 하는 갈무리 잔치로 마무리되는 한 해 동안의 지속적인 도농 교류 활동, 원에서 이루어지는 텃밭 가꾸기와, 직접 기른 농작물로 이루어지는 요리 활동, 그리고 학부모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먹거리 교육 등이 어우러지며 아이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한 끼의 먹거리에 햇빛과 비와 바람, 그리고 많은 이들의 수고로움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살아 있는 땅과 모든 생명에 감사하게 되어 다른 존재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 공경의 태도를 기르게 됩니다.



땅콩 캐기 체험 - 유기농 땅콩을 캐고 따보아요



모내기 체험 - 친환경 생산지와 함께하는 한 해 살이



가을걷이 체험 - 친환경 생산지와 함께하는 한해살이



갈무리 - 생산자님들을 우리 원으로 초대해요

2.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의 절기 살이 교육

수도권 생태유아공동체 생태 유아교육의 가장 큰 흐름은 ‘절기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기살이’란 절기를 따라 변해가는 하늘과 땅 그리고 주변의 자연과 삶의 모습을 관찰하고 이해하면서, 이러한 것들 사이의 질서 있는 연결 고리에 눈을 떠가고 자연의 흐름에 따른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은 DNA를 통해 생명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생명의 설계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후 환경 즉,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기를 안다는 것 또는 절기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주와 자연의 질서가 만드는 ‘때’를 알고 이러한 ‘때’에 맞춰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절기살이는 콘크리트 숲에 갇혀 살아가며, 자연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한 생활 방식입니다. 산업화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급증과 더불어 플라스틱으로 온 지구가 뒤덮이면서 대멸종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문명의 생태적 전환은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문명의 생태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생태 전환교육’의 핵심은 ‘생명애(Biophilia, 생태 공경)’를 기르는 것입니다. 사회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은 ‘생명애’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와 자연계에 공감하려는 우리 자신의 타고난 성향을 반영하는 본질적인 감정”이라고 합니다. 즉 ‘생명애’는 모든 인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계화, 도시화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점점 자연의 리듬과 흐름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런 인간의 삶의 방식이야말로 지구와 모든 생명을 파국으로 몰고 간 원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절기살이’는 끊겨 버린 자연과의 교감을 되살리고 자연의 질서와 리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애’ 감각을 일깨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절기살이’에 적응하게 되면 이기적인 에고에 갇혀 있던 ‘생명애’가 살아나게 되어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 사이에 끊어졌던 순환의 연결 고리가 되살아나게 됩니다. 따라서 ‘절기살이’는 문명의 생태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생태 전환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의 ‘절기살이’교육은 겨울, 봄, 여름, 가을이라는 사계절의 흐름에 따른 24절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절기마다 의미를 알아보고 해당하는 세시풍속, 노래, 옛 이야기, 놀이가 연결되어 이루어집니다. 또한 각각의 절기에 알맞은 먹거리도 직접 만들고 먹어보며 바깥놀이와 산책 활동을 통해 직접 변화한 날씨와 자연환경 및 사람들의 변화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달마다 적합한 작물을 직접 심고 가꾸며 24절기를 몸으로 삶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절기살이’를 하면서 자연의 신비와 감사함을 알게 되어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조상들의 지혜로움을 느끼며 생태적인 삶을 실천하게 됩니다.

〈절기살이 연간 교육계획안 중 일부〉

	견우직녀 달 7월	타오름 달 8월		
먹 거 리	• 똑딱 고추장 담그기	• 과일화채		
	• 팔빙수	• 오이냉국		
	• 매실 발효액(건강음료)	• 살구 발효액(건강음료)		
몸짓놀이	• 몸짓놀이 배우기 4 - 가슴 펴기, 귀 자극하기, 머리, 얼굴 혈 누르기, 하늘, 땅 사람 되기	• 몸짓놀이 배우기 5 - 다리 뻗기, 엉덩이 들기, 숨 고르기		
명 상	• 물길건기(교감명상)	• 발 맞춰 건기(건기명상)		
	• 잔디(건기명상)	• 빗소리 듣기(산책명상)		
	• 텃밭열매(산책명상)			
바깥놀이	• 수로놀이	• 물총놀이		
	• 물놀이			
	• 비눗방울놀이		• 종이 배 놀이	
산 책	• 곤충 관찰하기	• 버찌로 얼굴 그림		
	• 나무놀이	• 봉숭아 물 들이기		
	• 풀잎왕관 놀이	• 옥수수 장승 만들기		
	• 나무랑 짝하기	• 우산 쓰고 빗방울소리 탐색하기		
손끝놀이	영아	• 손바닥 찍기	영아	• 칼로 자르기
	유아	• 곡선 자르기 • 색종이로 접어보기	유아	• 염색하기 • 색 풀 그림 그리기
세시풍속	칠석 (7월7일)	• 고누놀이(세시놀이) • 칼국수(세시음식)	백중 (7월15일)	• 공기놀이(세시놀이) • 삼계탕(세시음식)
	우리놀이	• 얼음 땡	• 기러기 놀이	
• 손 씨름		• 쥐와 고양이		
• 가마놀이		• 투호 놀이		
• 산가지놀이		• 딱지치기		
절 기	• 소서 - 여름 더위의 시작	• 입추 - 가을의 시작		
	• 대서 - 더위가 가장 심한 때	• 처서 - 일교차 커짐		
텃 밭	• 잎채소 수확하기(상추, 깻잎)	• 뿌리채소 수확하기(당근)		
	• 열매채소 수확하기(오이, 옥수수, 가지, 고추)	• 고구마 줄기 수확하기		
	• 열매채소 수확하기(수박, 참외)	• 가을 농사 텃밭 만들기		

3.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의 기후위기 대비 교육

지난 20년간 전국의 생태유아공동체는 유아교육과 부모들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더불어 지구촌에 거세게 밀려드는 기후재앙은 기존의 생태 유아교육만으로는 아이들의 미래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 생태유아공동체'는 2020년부터 "지구야! 그만 변해, 우리가 변할게"를 슬로건으로 하여 영유아, 교사, 부모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기후위기대응 교육’과 캠페인 및 실천 행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사무국에서는 3년간 지속적으로 ‘지구를 위해 기억할, 날마다 지구의 날’을 안내하여 지구 생태계와 기후 위기, 멸종동물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하고, 각 기관과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합기관들은 매월 진행되는 ‘생태 월례 특강’을 통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라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고, 각 기관과 가정이 긴밀히 연계하여 지구를 살리기 위한 실천을 함께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각기 원에서 실천한 사례를 전체 조합기관과 공유하고 이를 또다시 지역의 다른 원들 과도 공유하는 방식으로 모두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 위기대응교육’의 실천 사례들입니다.

〈실천 사례〉

※ 기후변화의 위기에 맞서는 실천 : 연간 계획

월	실천내용		월	실천내용	
4월	기관	종이 안 쓰는 날 실천	8월	기관	잔반 없는 날 실천하기
	기관, 가정	나무 심기, '지구의 날' 맞이 소등		가정	통컵 사용하기, 올바른 분리수거하기
5월	기관	흙공 만들기, 기후변화 위기 실천 홍보 및 계획	9월	기관	친환경 포장, 재활용 놀잇감 만들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정	기후위기 관련 부모교육		가정	1.5도 낮추는 실천 서약
6월	기관	기후위기 캠페인, 줍깅	10월	기관, 가정	아나바다 나눔장터
	가정	안쓰는 플로그 뽑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11월	가정	제철음식 먹기, 음식 남기지 않기
7월	기관	'세계 호랑이의 날' 맞이 그림자 동화	12월	기관, 가정	우유팩 휴지 교환
	가정	채소식단 멀기, 반려식물 키우기		가정	친환경 포장하기, 폐의약품 바르게 버리기
기관 내 일상적 실천		<교 사> • 친환경 포장재 사용 • 플라스틱 놀잇감 자제 • 재활용품을 이용한 교구제작 <아이들> • 물품 아껴 쓰기 • 환경도서 대여			

※ 교사 연수

7월의 교사 나눔 생태월레특강 교사전달연수 <이러다 지구에 플라스틱만 남겠어>
 우리 생활에 정말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플라스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겪게 되는 우리의 환경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겠지하고 생각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생활 전반에 자리를 잡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나누며 실천하여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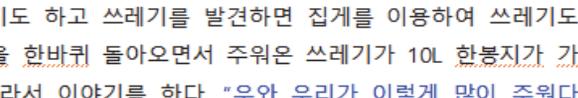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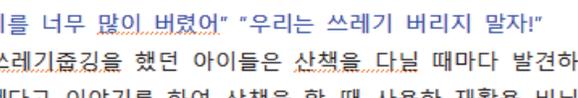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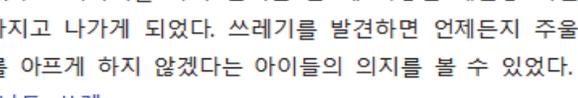
※ 기관에서의 실천 활동

환경의 날 운동(쓰레기 줍감)		언제	6월 4일
어디서	양재천	누구와	만1세~만5세, 원아
실천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환경을 보호한다. · 환경캠페인으로 기후위기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알린다. 		

아이들 이야기
 산책을 하다보면 많은 쓰레기들을 만나게 된다. 쓰레기들을 발견한 아이들은 "선생님 여기 쓰레기예요." "여기도 있어!" 어느날 모둠을 하면서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아이들이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라고 이야기를 하여 환경의 날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알려주기로 하였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요." "글자로 써서 알려줘요." 아이들이 직접 그림도 그리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 보았다. "지구야 아프지마라고 쓰자"

그림과 이야기를 담은 종이를 들고 띠를 몸에 둘러 양재천으로 향했다. 양재천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종이를 보여주기도 하고 쓰레기를 발견하면 집계를 이용하여 쓰레기도 주워보았다. 긴시간은 아니었지만 양재천을 한바퀴 돌아오면서 주워온 쓰레기가 10L 한봉지가 가득했다. 쓰레기의 양을 보고 아이들이 놀라서 이야기를 한다. "우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주웠다고?" "쓰레기 정말 많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렸어" "우리는 쓰레기 버리지 말자!"

환경의 날 운동이 끝나고
 환경의 날 운동과 함께 쓰레기줍감을 했던 아이들은 산책을 다닐 때마다 발견하는 쓰레기를 보고 주워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산책을 할 때 사용한 재활용 비닐과 쓰레기줍감용 집계를 가지고 나가게 되었다. 쓰레기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주울 수 있도록 하였고, 쓰레기를 주워서 지구를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아이들의 의지를 볼 수 있었다. "저기 쓰레기가 또 있네! 집게 주세요." "나도 쓰레기 찾았어" 얼마 후에는 형님들의 쓰레기줍감을 동생들도 함께 참여하고 싶어하여 함께 양재천을 돌며 쓰레기를 주워보았다.


※ 동영상 캠페인

참여 잇기 동영상 만들기		언제	11월 한 달
어디서	어린이집 안과 밖	누구와	모든 아이들
실천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해야하는 일에 대해 아이들 스스로 나눈다. · 부모님과 함께 영상을 보며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아이들과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었다. 다양한 실천들을 하면서 아이들은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고, 스스로 생각하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행동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이야기 나누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자. 기후가 변하지 않으려면 지구를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 "에어컨 대신 선풍기 사용해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야해요. 요즘 통에 있는 스티커 잘 떼고 있어요.", "우리 손수건도 만들었잖아요." 하며 아이들은 저마다 실천의 경험을 앞다투어 이야기 하였다. "그럼 우리가 실천 했던것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엄마, 아빠 더 열심히 해야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제가 찍힌다고요? 으~~", "누가 찍어요? 선생님이요? 와~" "제목은 뭐라고 할까?", "지구 지키기요.", "지구 지키는 사람!", "그럼 지구 지키는 사람! 지구 지킴이로 해볼까?" 아이들은 노래와 영상을 만드는 것에 호기심을 가지며 참여할 수 있었다. 권지수 교사의 작곡과 바름반(만6,7세) 아이들의 작사로 노래를 만들고 어린이집 주변과 원내에서 영상을 찍었다. 찍은 영상은 부모님과 함께 보며 기후위기에 따른 실천은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구 지킴이> 작곡 : 바름반 교사 권지수, 작사 : 바름반 아이들
 분리수거해요, 같은 것끼리 모아요, 에어컨 대신 선풍기 사용해요, 휴지 대신 손수건,
 가까운 거리는 걸기 지구 지키기 어렵지 않아요.



가정에서 함께 동영상을 본 아이들은 "엄마가 재밌대요.", "제가 나온 부분을 찾느라 몇 번을 봤어요." 하며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동영상을 본 경험을 이야기 하였다. 부모님과 함께 영상을 보며 기후위기에 따른 실천이 이어져 나가야함을 이야기 나누며 가정에서 지키는 '이 달의 할 일'이 다시 관심 속에서 실천이 지속될 수 있었다.

※ 가정에서의 실천

6월 ① **안쓰는 플러그 뽑기** - 사용하지 않을 때 플러그를 뽑는 것만으로도 전기사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② **장바구니 사용하기** - 비닐 사용이 편리하지만 마트를 갈 때 비닐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여 비닐사용량을 많이 줄여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쁨반(3세) 정승연 가족의 실천소감 ☺
 장바구니를 사용하거나 안 쓰는 플러그를 빼두는 일은 사소해서 잊기 쉽지만 반복해서 실천하다보면 습관이 되어 의식하지 않고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 작은 노력의 아이들의 세상을 조금이나마 아름답게 만들수 있다면 보람할 것 같아요.



7월 ① **채소식단을 실천하는 하루**(1일 채소 식단 2끼 사진) - 채소식단을 통해 육류 소비를 줄이는 저탄소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반려식물키우기** -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산소배출을 도울 수 있습니다.

☺ 바름반(7세) 김유현 가족의 실천소감 ☺
 육류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채소만 있는 식단으로 먹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환경을 위한다는 것을 아이들도 이해하고 더 열심히 먹으려고 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받은 봉숭아꽃이 잘 자라고 있어 꽃을 이용한 물들이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9월 ① **1.5°C 낮추기 서약하기** - 지구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필수적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서약을 통해 지구 평균 온도를 1.5°C 낮추기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② **대중교통 이용하기** - 9월 22일은 '세계 차 없는 날'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우리의 지구가 숨 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 스스로반(5세) 전호 가족의 실천소감 ☺
 어린이집에 오는 길에 버스를 타는 것을 좋아하는 호지만 바쁜 아침이다보니 편리한 차를 이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지구를 위한 한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종종 호와 버스를 타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가정 및 지역 사회와 함께



※ 교사들이 느낀 점 : 바름반(만 4,5세) ○○○교사

◎ 아이들 발달에 맞춘 플라스틱 놀잇감이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물품들도 비닐이나 일회용품들이 간편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생활용품 중 하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사고, 낡으면 버리는 일상이 지구환경과 함께 살아가는데 무책임한 행동임을 몰랐던 날들이었습니다. 기후 위기 운동은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경각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천들을 하며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발달에 맞춘 화려한 놀잇감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일까? 지금 어른들의 편리함이 미래의 아이들에게 어떤 가혹한 결과를 안겨줄까? 기후 위기에 대해 알아가고 공부할수록 두려워져 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가정에 추천해 드렸던 책 중에 타일러 라쉬가 쓴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의 맨 앞장에는 '나의 조카들, 미래를 생각하며'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나가야 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 교사들의 변화

- ◎ 5~6년 전 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 방독면 쓰고 살게 생겼어.”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합니다. 정말 마스크가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왔어요. 지금까지 실천하지 않았던 것을 반성하게 되며 일상 속의 작은 부분들까지 가벼이 생각하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절약하는 것은 기본으로 해왔지만 근본적으로 소비하지 않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이들과 함께 실천하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 ○○○교사
- ◎ 아이들의 생각에서 시작된 궁금증으로 함께 풀어나가니 이제는 환경을 생각하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바깥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일회용기 대신 반찬용기를 사용하고 기관에서도 한마음으로 교사들이 힘을 모으니, 더 적극적으로 되며 어린이집 밖에서도 이러한 습관들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교사

※ 부모들이 느낀 점 : 기쁨반 ○○○어머니

◎ 올 초 ○○이와 사진 책을 보다가 난처한 적이 있습니다. 죽은 알바트로스 몸속에 플라스틱이 가득한 사진이었습니다. 또한 이 어미 새가 플라스틱 조각을 물어 배고픈 아기 새에게 입으로 건네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까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당시 ○○이는 자연에게 순수하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나비와 여치를 쫓아다니고 아침에는 매미소리, 밤에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자연이 주는 감동과 자연이 처한 아픈 현실을 동시에 마주시켜야 하는 순간들은 이후에도 계속 나타났습니다. 이를 아이에게 어떻게 접근시킬까 고민하던 중에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이 시작되었습니다. 약 7개월 동안 진행된 활동에 ○○이는 예상외로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매달 2가지씩 총 14개의 실천을 했으며 그중 '분리수거하기', '마스크 잘 잘라서 버리기', '식물 기르기' 활동들은 특히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환경운동을 체득하게 되었으며, 자연이 주는 즐거움도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본인의 실천이 자연이 주는 선물로 되돌아움을 깨달을 겁니다. 또한 훗날 다른 아이들에게도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을 느끼게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자연에게 올바르게 접근할 기회를 만들어준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 가정에서의 변화

◎ 어린이집에서 지구와 환경에 대한 놀이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이는 쓰레기가 나올 때 플라스틱인지 아닌지 자꾸 물어보고,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다며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라고 합니다. 저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먹을 만큼만 먹자고 해요. 집에 그릇 가져가서 음식 가져오기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노력 중이에요. 그리고 가정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아이가 장난감 사달라는 때가 줄어들었습니다. “플라스틱이 썩는데 500년 넘게 걸리지.” 먼저 환경에 대한 말을 하며 아이도 의식 변화가 생겼습니다.

- ○○○어머님

◎ 포장 용기 챙겨 가서 담아오기

언젠가부터 아이가 치킨 먹고 싶다고 하는 일이 잦아져서 규칙을 정했어요. 육식과 기름에 튀긴 음식을 자주 먹지 않음으로써 ① **지구와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되어 한 달에 한 번만 먹기로요.** 그리고 창 3동 선생님들처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가까운 거리에서 ② **포장을 해올 땐 접시나 반찬통을 들고 가서 담아 와요.** 한 달 만에 치킨 먹는 날! 그래서 더 맛있고 즐거운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 ○○○어머님

4. 나가며

지금 우리 모두의 공동의 집인 지구는 불타고 있으며, 지구에서 살아가던 생물들은 대멸종의 길을 향해 돌진하고 있고, 우리들은 일주일에 카드 한 장씩의 분량에 해당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 중 많은 이들이 지구의 지속 불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대로라면 아이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총체적 파국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인류 역사에 전례가 없는 생태적 전환을 향해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시급하게 이루어야 합니다. 생태 유아교육은 이제 특수한 기관만의 교육도 아니고 특정한 단체들의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이제 ‘생태 유아교육’은 오롯이 우리 아이들과 생명공동체의 행복한 현재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사회의 부문들과 연대하고, 헌신해야 하는 역할을 기꺼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 KICCE 9차 정책토론회

미래환경 대응연구 2차 정책포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영유아교육 : 기후, 그린, 생태